

국  
역

# 世醫得效方

大方脈雜醫科  
卷二【傷風】外



ISBN 978-89-5970-596-2 (PDF)  
ISBN 978-89-5970-610-5 (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세의득효방 권2 世醫得效方卷第二	1.1
○대방맥잡의과 ○大方脈雜醫科	1.1.1
○상풍 ○傷風	1.1.1.1
○상서 ○傷暑	1.1.1.2
○상습 ○傷濕	1.1.1.3
○중한 ○中寒	1.1.1.4
○중서 ○中暑	1.1.1.5
○중습 ○中濕	1.1.1.6
○사기겸증 ○四氣兼中	1.1.1.7
○사기상감 ○四氣相感	1.1.1.8
○학질 ○疚瘡	1.1.1.9
○담궐 ○痰厥	1.1.1.10
○현모 ○眩冒	1.1.1.11

◦ 졸궐과 시궐 ◦ 卒厥尸厥	1.1.1.12
◦ 사증 ◦ 沙證	1.1.1.13
◦ 시역 ◦ 時疫	1.1.1.14

##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 世醫得效方卷第二

### 세의득효방 권2



† ○大方脈雜醫科

○대방맥잡의과



○傷風

○상풍

• 【桂枝湯】

• 【계지탕】

治足太陽膀胱經傷風，脉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嗰嗰惡寒，洒洒惡風，翕翕然發熱，鼻鳴乾嘔。又太陽證宜汗，其人失血及下利，則頻與服，使體潤熱，連日當自解。

족태양방광경의 상풍(傷風)을 치료한다. 양맥은 부(浮)하고 음맥은 약(弱)한다. 양맥이 부하면 열이 저절로 나고, 음맥이 약하면 땀이 저절로 난다. 오싹오싹 추위를 싫어하고 움츠리며 바람을 싫어하며, 찝찝한 듯 열이 나고 코에서 바람소리가 나오고 헛구역을 한다. 또한 태양증은 마땅히 땀을 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혈을 많이 잃었거나 하리(下利)가 있었다면, 이 약을 여러 번 복용하게 하여 몸이 촉촉할 정도로만 해주어야 한다. 며칠 연속하여 하면 당연히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桂枝(去皮)、芍藥 各三兩，甘草 一兩。

계지(껍질을 제거한다)、작약 각 3냥, 감초 1냥.

右剉散，每服二錢，水一盞半，生薑三片，棗一枚擘破，共煎至七分，去滓溫服，不拘時。惟冬春初可行。自春及夏至以前，可加黃芩半兩。夏至以後，加知母半兩，石膏二兩，或升麻半兩。若病人素虛寒者，不用加減。無汗者，不宜服之。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2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 대추(쪼갠다) 1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 한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오직 겨울과 봄 초에만 복용할 수 있다. 봄부터 하지(夏至) 이전까지는 황금 반 양을 더할 수 있다. 하지 이후에는 지모 반 양, 석고 2양, 혹은 승마 반 양을 더한다. 만약 환자가 평소 허한 사람이라면 가감하지 않는다. 땀이 없는 사람은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杏子湯】

- 【행자탕】

治足陽明胃經傷風，惡食，口苦，咽乾，腹滿，微喘，發熱，惡風，自汗，嗜臥身重，小便難，潮熱而噦，其脉浮、弦、長而數，悉主之。

족양명위경의 상풍을 치료한다. 음식을 싫어하고, 입이 쓰며, 목구멍이 마르고, 배가 그득히 부풀고, 약간 숨이 차고, 열이 나며, 바람을 싫어하고, 저절로 땀이 나오고, 눕기를 좋아하고 몸이 무거우며, 소변을 보기 어렵

고, 조열이 있으면서 땀국질하며, 부맥、현맥、장맥이 나타나면서 삭맥  
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치료한다.

杏仁(去皮尖)、半夏(湯去滑)、五味子 各三錢半， 芍藥、桂心、細辛、乾薑  
(炮)、大黃(蒸)， 甘草(炙) 各三錢， 茯苓 四錢。

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반하(끓인 물로 미끌미끌한 것을  
제거한다)、오미자 각 3돈 반, 작약、계심、세신、건강(통째로 굽는다)  
、대황(찐다)、감초(굽는다) 각 3돈, 복령 4돈。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至七分, 去滓, 食前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  
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 【柴胡加桂湯】

- 【시호가계탕】

治足少陽膽經傷風四五日，身熱，惡風，頸項強，脇下滿，手足溫，口  
苦而渴，自汗，其脉陽浮陰弦。或發汗多，亡陽譫語，可以此和其榮衛，  
通具津液自愈。

족소양담경의 상풍이 4 - 5일이 되어 몸에 열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목  
덜미가 뻣뻣하고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손발이 따뜻하고 입이 쓰면서  
목이 마르며,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때의 맥은 양은 부(浮)

하고 음은 현(弦)하다. 혹은 발한을 많이 하여 망양이 되어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이것으로써 그 영위를 조화시키고 그 진액을 통하게 하면 저절로 낫는다.

柴胡一兩三錢，半夏(湯去滑)四錢一字，甘草(炙)三錢一字，芍藥、黃芩、人參、辣桂各半兩。

시호 1냥 3돈, 반하(끓는 물로 미끄러운 것을 제거한다) 4돈 1자, 감초(굽는다) 3돈 1자, 작약、황금、인삼, 육계 각 반 냥.

右剉散, 每服五錢, 水一盞半, 薑五片, 棗一枚, 煎至七分, 去滓, 空心溫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1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복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桂枝芍藥湯】
- 【계지작약탕】

治足太陰脾經傷風，自汗，咽乾，腹滿，自利不渴，四肢倦怠，手足自溫，其脈弦大而緩者。

족태음비경의 상풍으로, 땀이 저절로 나오고 목이 마르며 배가 그득하고 변이 저절로 나오되 갈증은 없으며 온몸이 피곤하고, 수족은 저절로 따뜻하며, 맥이 현대(弦大)하면서 완(緩)한 것을 치료한다.

桂心 半兩 , 白芍藥 三兩.

계심 반 냥, 백작약 3냥.

右剉散, 每服五錢匕, 水一盞半, 薑五片, 棗一枚, 煎七分, 去滓, 溫服. 腹痛甚者, 加大黃一兩.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1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대황 1냥을 추가한다.

- 【桂附湯】

- 【계부탕】

治足少陰腎經傷風, 胸滿, 心煩, 咽喉痛, 自汗, 腰疼連脇骨酸痛, 嘔吐涎沫, 頭痛, 其脉沈弦者.

족소음신경의 상풍으로, 가슴이 그득하고 마음이 괴로우며 목구멍이 아프고, 저절로 땀이 나며,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이어져 정강이뼈가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거품을 토하며 머리가 아프고 맥이 침현(沈弦)한 것을 치료한다.

附子(生, 去皮臍)、桂心、乾薑、芍藥、甘草(炙)、茯苓、桃仁(去皮尖麪炒)各一兩.

부자(생것.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계심、건강、작약、감초(굽는다)  
、복령、도인(껍질과 끝을 제거하고 밀가루와 함께 볶는다) 각 1냥.

右剉散, 每服四錢, 水二盞, 煎七分, 去滓, 食前服. 或咽喉痛, 加桔梗半兩.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2잔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혹은 인후통이 있으면 길경 반냥을 더한다.

- 【八物湯】
- 【팔물탕】

治足厥陰肝經傷風, 惡風而勑, 自汗, 小腹急痛, 寒熱如瘡, 骨節煩疼, 其脉尺寸俱微而遲者.

족궐음간경의 상풍으로, 바람을 싫어하고 나른하며, 저절로 땀이 나고, 아랫배가 갑자기 아프며, 한열이 학질과 같고, 뼈마디가 답답하고 아프며, 척촌의 맥이 모두 미약하면서(微) 느린(遲) 것을 치료한다.

桂心、當歸、川芎、前胡、防風 各三分, 芍藥 一兩半, 甘草(炙)、茯苓 各半兩.

계심、당귀、천궁、전호、방풍 각 3푼, 작약 1냥 반, 감초(볶는다)、복령 각 반 냥.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薑五片, 棗三枚, 煎至八分, 去滓, 空心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3개과 함께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복에 복용한다.

## ○傷暑

### ○상서

- 【五苓散】

- 【오령산】

治傷暑，煩渴引飲無度. 兼治傷寒溫熱，表裏未解，煩渴引水，水入即吐，或小便不利. 及汗出表解，煩渴不止. 又治霍亂吐利，黃疸瘟疫.

상서(傷暑)로 타듯이 갈증이 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생긴 증상을 치료 한다. 또한 상한과 온열병에 표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타듯이 갈증이 있어 물을 먹고자 하나 물이 들어가면 바로 토하거나, 혹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땀이 나서 표증이 해소되었으나 타 듯한 갈증이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꽉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 황달, 온역을 치료한다.

澤瀉 二兩半，桂心 一兩，猪苓(去皮)，赤茯苓(去皮)，白朮(去蘆)各一兩半.

택사 2냥 반, 계심 1냥, 저령(껍질을 제거한다)、적복령(껍질을 제거한다), 백출(노두를 제거한다) 각 1냥 반.

右爲末，每服二錢，沸湯調下，不拘時候。服訖，多飲熱湯，汗出即愈。溫熱病，加甘草一兩炙。癥熱在裏，身發黃疸，濃煎茵陳湯，食前服。痘病發渴，及中暑引飲，白水調服。小兒，加白朮末少許。發虛熱，每料綿黃芪、人參、麥門冬去心各一兩。分陰陽，退寒熱，山茵陳、車前草每服各二根。止瀉，加紫蘇、陳米各少許，姜汁半匕。久痢，加肉豆蔻五錢，每服鹽梅一枚。赤痢，烏梅一枚，粟殼二枚去蒂赤膜醋炒。白痢，粟殼二枚，製同上，粟米一撮。腹痛，南木香半錢。渴，烏梅一箇，枇杷葉二片去白毛，糯米一撮。伏暑鼻衄，白茅花一握。小便血，以生料者每服加梔子三箇，車前子一撮。煩熱心神恍惚，朱砂一字，燈心二十莖，麥門冬二十粒去心，淡竹葉十皮，車前草二根。傷暑吐血，白茅花一握。熱瀉，車前子一撮，麥門冬二十粒去心。暑濕瀉，紫蘇五葉，木瓜三片，車前子一撮。傷暑頭痛，濃煎葱白湯。大便水瀉，小便不利，加真車前子末少許。又方，治燥渴，去桂心，加入參，謂之春澤湯。濕瀉身痛，加蒼朮少許。秋多淫雨，人患濕疫。在冬時，服之效。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든다. 매번 2돈을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하며,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복용한 후에는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 땀이 나면 낫는다. 온열병에는 구운 감초 1냥을 더한다. 뭉친 열이 속에 있어 몸에 황달이 생기면 인진을 진하게 달인 물에 식전에 복용한다. 황달병으로 갈증이 나거나 중서(中暑)로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는 깨끗한 물에 타서 복용한다. 소아의 경우에는 백출 가루를 조금 더한다. 허열이 날 때는 매 처방에

면황기、인삼、맥문동(심을 제거한다) 각 1냥을 더한다. 음증、양증을  
분별해 내고 한열왕래를 없애려면 산인진、차전초를 매번 각 2뿌리씩 넣  
고 복용한다. 설사를 멈추려면 자소、진미 각 조금씩과 생강즙 반 숟가락  
을 더한다. 오래된 이질(久痢)에는 육두구 5돈을 더하고, 복용할 때마다  
염매 1개를 함께 먹는다. 적리(赤痢)에는 오매 1개, 앵속각 2개(꼭지와 불  
은 막을 제거하고 식초에 볶는다)를 더한다. 백리(白痢)에는 앵속각 2개  
(제조법은 위와 같다)와 족발 한 줌을 더한다. 복통에는 남복향 반 돈을  
더한다. 갈증에는 오매 1개, 비파엽 2장(흰 털을 제거한다), 찹쌀 한 줌을  
더한다. 복서(伏暑)로 코피가 날 때는 백모화 한 줌을 더한다. 소변에 피  
가 섞일 때는 이 처방에 치자 3개, 차전자 한 줌을 매번 더해 복용한다. 번  
열(煩熱)로 정신이 몽롱할 때는 주사 1자(字), 등심 20줄기, 맥문동 20알  
(심을 제거한다), 담죽엽 10장, 차전초 2뿌리를 더한다. 상서(傷暑)로 토  
혈할 때는 백모화 한 줌을 더한다. 열로 인한 설사(熱瀉)에는 차전자 한  
줌, 맥문동 20알(심을 제거한다)을 더한다. 서습사(暑濕瀉)에는 자소 5잎,  
모과 3조각, 차전자 한 줌을 더한다. 상서(傷暑)로 두통이 있을 때는 총백  
을 진하게 달인 물에 복용한다. 대변이 물같이 설사하고 소변이 잘 나오  
지 않을 때는 진품 차전자 가루를 조금 더한다. 또 다른 처방으로는 조갈  
(燥渴)을 치료할 때 계심을 빼고 인삼을 더하는데, 이를 춘택탕(春澤湯)  
이라 한다. 습사(濕瀉)로 몸이 아플 때는 창출을 조금 더한다. 가을에 칙  
칙하고 싸늘한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습역(濕疫)을 앓는데, 겨울철  
에 이것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縮脾飲】

- 【축비음】

治伏暑熱，煩渴燥悶，乾嘔霍亂。

숨은 서열(伏暑熱)로 타듯이 갈증이 나면서 가슴이 마르면서 괴롭고, 마른 구토와 꽉란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草果(去皮)、縮砂(去殼)、烏梅(去核)各一兩，乾葛、白扁豆、生薑(切片，日乾)各五錢重。

초과(껍질을 벗긴다)、축사(껍데기를 제거한다)、오매(씨를 제거한다)  
각 1냥, 건갈、백편두、생강(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린다) 각 5돈.

右剉散, 每服五錢，水一盃，煎至八分，浸冷服。或欲溫欲熱，亦可斟酌。

傷暑發熱，頭目痛，用以吞消暑圓。方見后中暑類。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사발에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차게 식혀서 복용한다. 혹은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복용하고 싶으면 적당히 상황을 짐작하여 한다. 상서(傷暑)로 열이 나오고 머리와 눈이 아플 때는 이 약물로 소서원(消暑圓)을 삼켜 복용한다. 처방은 뒤의 중서(中暑) 부분에 나온다.

- 【卻暑散】

- 【각서산】

治冒暑伏熱，頭目眩暈，嘔吐，泄利，煩渴，背寒，面垢.

더위를 뒤덮어 써(冒暑) 복열이 생겨,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구토하며 설사하고, 타듯이 갈증이 나고, 등이 차갑고 얼굴에 때가 끼는 것을 치료한다.

赤茯苓(去皮)、甘草(生) 各四兩，寒食麪、生薑 各一斤(細切，搜麪令勻).

적복령(껍질을 제거한다)、감초(생것) 각 4냥, 한식면·생강 각 1근.(잘게 썰어서 면과 고루 섞는다).

右爲末，每服二錢，新汲水調下，或湯點服，不拘時候.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든다. 매번 2돈을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끓인 물에 넣고 복용한다. 복용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香薷圓】

- 【향유원】

治大人小兒傷暑伏熱，燥渴，脅悶，頭目昏眩，胸膈煩滿，嘔噦惡心，

口苦咽乾，肢體困倦，不思飲食. 或發霍亂，吐利轉筋，并宜服之.

어른과 어린이의 상서(傷暑)로 인한 복열(伏熱)로, 심한 갈증이 나고, 정신이 혼란(脅悶)하며, 머리와 눈이 껌껌해지면서 어지럽고, 가슴의 타듯이 답답하고, 구토와 오심이 나고,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몸이 심하게 피

곤하고,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을 치료한다. 혹은 꽉란이 발생하여 토하고 설사하며 근육이 뒤틀리는 것에도 마땅히 복용한다.

香薷(去梗)、紫蘇(去梗)、乾木瓜 各一兩， 丁香、甘草(炙)、檀香、白茯苓  
(去皮)、藿香 各半兩.

향유(줄기를 제거한다)、자소(줄기를 제거한다)、건모과 각 1냥, 정향、  
감초(굽는다)、단향、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곽향 각 반 냥.

右爲末，蜜圓彈子大，每一圓至二圓，熟水嚼下. 或新汲水化下亦得. 小兒半圓.

위의 약재를 가루 내어 꿀에 총알 크기로 환을 만든다. 매번 1알에서 2알 까지 끓인 물에 씹어서 삼킨다. 혹은 새로 길어온 물에 녹여서 삼켜도 된다. 소아는 반 알을 먹는다.

- 【桂苓甘露散】
- 【계령감로산】

治傷寒中暑冒風，飲食、中外一切所傷，傳受濕熱內甚，頭痛，口乾，  
吐瀉，煩渴喜飲冷，小便赤澁，大便急痛，濕熱，霍亂吐下，腹滿痛悶。  
及小兒吐瀉驚風.

상한、중서、모풍(冒風), 음식상으로 안팎 모두가 손상을 받아 습열(濕熱)이 안에서 심하게 축적되어,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토하고 설사하며, 타듯이 목이 말라 찬 것을 마시기 좋아하고, 소변이 붉고 보기 힘들며, 대변을 볼 때 갑자기 통증이 있고, 습열로 인한 꽉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그득하고 아프면서 답답한 증상을 치료한다. 그리고 소아의 토사와 경풍(驚風)도 치료한다.

茯苓 一兩(去皮), 甘草 二兩(炙), 白朮 半兩, 漚瀉 一兩, 桂 半兩(去皮), 石膏 二兩, 寒水石 二兩, 滑石 四兩, 猪苓 半兩.

복령 1냥(껍질을 제거한다), 감초 2냥(굽는다), 백출 반 냥, 택사 1냥, 계반 냥(껍질을 제거한다), 석고 2냥, 한수석 2냥, 활석 4냥, 저령 반 냥.

右爲末, 每服三錢, 溫湯調下, 新水亦得, 生薑湯尤良. 小兒每服一錢.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든다. 매번 3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신다. 새로 길은 물도 괜찮다. 생강탕이 더욱 좋다. 소아는 매번 1돈을 복용한다.

- 【六和湯】
- 【육화탕】

治心脾不調, 氣不升降, 霍亂轉筋, 嘔吐泄瀉, 寒熱交作, 痰喘咳嗽, 胸膈痞滿, 頭目昏痛, 肢體浮腫, 嗜臥倦怠, 小便赤澁. 并傷寒陰陽不分, 冒暑伏熱煩悶, 或成痢疾. 中酒煩渴不食. 婦人胎前產後, 并宜服之.

심비(心脾)가 조화롭지 못하여 기가 승강하지 못하게 되어, 광란으로 근육이 경련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며, 한열이 교대로 일어나고, 가래가 끊으면서 숨이 차고 기침하며, 흉격이 막혀 그득하며,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아프며, 사지가 부종이 생기고, 눕기를 좋아하고 나른하며, 소변이 붉고 시원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아울러 상한에 음증과 양증으로 분별되지 않고, 더위를 뒤집어써(冒暑) 복열(伏熱)이 생겨 속이 타듯이 갑갑하거나, 혹은 이질이 된 것도 치료한다. 술에 중독되어(中酒) 타듯이 갈증이 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도 치료한다. 부인의 임신 전과 산후에도 모두 복용하는 것이 좋다.

人參、縮砂、甘草(炙)、杏仁(去皮尖)、半夏(湯炮七次) 各三兩，白扁豆(姜汁略炒)、赤茯苓(去皮)、藿香葉(拂去塵)、木瓜 各二兩，香薷(去梗)、厚朴(姜汁製) 各四兩。

인삼、축사、감초(볶는다)、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반하(끓는 물에 일곱 번 담근다) 각 3냥, 백편두(생강즙으로 살짝 볶는다)、적복령(껍질을 제거한다)、곽향엽(먼지를 털어낸다)、모과 각 2냥, 향유(줄기를 제거한다)、후박(생강즙으로 법제한다) 각 4냥.

右剉, 每服四錢, 水一盞半, 生姜三片, 棗子一枚, 煎至八分, 去滓, 不拘時候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 대추 1개과 함께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복용한다.

- 【冷香飲子】

- 【냉향음자】

老人虛人，伏暑煩燥，引飲無度，惡心疲倦，服涼藥不得者。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이 숨은 더위(伏暑)에 시달려 속이 타듯이 갈증이나 물을 과도하게 마셔, 오심이 나고 피곤한데 찬 약을 복용하면 안 될 때 쓴다.

草果仁 三兩，附子(炮，去皮臍)、橘紅 各一兩，甘草(炙) 半兩。

초과인 3냥, 부자(통째로 구어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귤홍 각 1냥, 감초(굽는다) 반 냥.

右剉散, 每服一兩，水二盞，生薑十片，煎半盞，去滓，沈冷，旋旋服，不拘時。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1냥을 물 2사발에 생강 10편과 함께 넣고 달여서 반 사발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차게 식혀서 조금씩 마신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 【瀎火散】

• 【발화산】

傷暑煩燥 , 發渴口乾. 及治血痢 , 婦人熱崩.

상서(傷暑)로 속이 타듯 마르고 갈증이 나며 입이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

그리고 혈리(血痢), 부인의 열붕(熱崩)을 치료한다.

青皮(去白)、赤芍藥、黃連(去鬚)、地榆 各等分.

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적작약、황련(잔뿌리를 제거한다)、지유 각 등분.

右爲細末, 每服一錢 , 冷水調下. 如蓄熱而氣血妄行 , 加甘草等分.

위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매번 1돈을 찬물에 타서 복용한다. 만약 열이 쌓여서 기혈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감초를 같은 분량만큼 더한다.

• 【枇杷葉散】

• 【비파엽산】

治中暑伏熱 , 煩渴引飲 , 嘔嘔惡心 , 頭目昏眩. 或陰陽不和 , 致成霍亂吐利 , 轉筋煩躁.

증서(中暑)로 인한 복열(伏熱)로, 속이 타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구역질하고 토하며 속이 메스꺼우며,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혹은 음양이 조화되지 않아 꽉란이 일고 토하고 설사하며, 근육 경련이 생기고 속이 타듯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枇杷葉(去毛, 炙) 半兩, 香薷 三兩, 白茅根、甘草(炙)、麥門冬(去心)、乾木瓜 各一兩, 陳皮(去白, 焙) 半兩, 丁香、厚朴(去皮, 姜汁炙) 各半兩.

비파엽(털을 제거하고 굽는다) 반 양, 향유 3양, 백모근·감초(굽는다)·  
맥문동(심을 제거한다)·건모과 각 1양, 진피(흰 부분을 제거하고 볶는  
다) 반 양, 정향·후박(껍질을 제거하고 생강즙으로 굽는다) 각 반 양.

右剉散, 每服五錢, 水一盞半, 生姜三片煎服. 煩燥, 沈冷服. 如脾虛感  
暑, 嘔吐不食, 以此藥煎, 去滓, 吞消暑圓六十粒, 立効. 體本虛, 嘔吐  
昏倦, 手足冷, 除茅根·麥門冬, 加附子炮用.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과 함께 넣고 달  
여서 복용한다. 속이 타듯 마르면 차게 식혀서 복용한다. 만약 비허(脾虛)  
한 상태에서 더위가 침입하여 구토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달인 후 찌꺼  
기를 제거하고 이 약에 소서원(消暑圓) 60알을 삼키면 즉시 효과가 있다.  
본래 체질이 허약하여 구토하고 정신이 혼미하며 피곤하고 손발이 찬 경  
우에는 모근과 맥문동을 제거하고 통째로 구운 부자를 넣어 사용한다.

- 【香薷散】

- 【향유산】

治臟腑冷熱不調, 飲食不節, 或食腥膾生冷過度, 起居不節, 或露臥濕  
地, 或當風取涼, 而風冷之氣歸於三焦, 傳於脾胃. 脾胃得冷, 不能消化  
米穀, 致令眞邪相干, 腸胃虛弱, 飲食變亂於腸胃之間, 致吐利, 心腹

疼痛，霍亂氣逆。有心痛而先吐者，有腹痛而先利者，有吐利俱發者，有發熱、頭痛、體疼而復吐利虛煩者，或但吐利心腹刺痛者，或轉筋拘急疼痛，或但嘔而無物出，或四肢逆冷而脉欲絕，或煩悶昏塞而欲死者。此藥悉能主之。

장부의 냉열이 조화롭지 못하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혹은 비린 회나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고 적절한 장소에서 자지 않거나, 혹은 습한 땅에 노숙하거나 바람을 맞으며 서늘한 곳을 즐겨 찾아, 풍냉의 기운이 삼초로 들어가고 비위(脾胃)에 전해져 생긴 병을 치료한다. 비위가 냉기를 받으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어 진기와 사기가 서로 뒤엉키게 된다. 장 위가 허약해져서 음식이 위와 장 사이에서 변란을 일으켜, 토하며 설사하고 명치와 배에 통증이 생기고 꽉란을 앓게 된다. 심통이 있으면서 먼저 토하는 경우가 있고, 복통이 있으면서 먼저 설사하는 경우가 있고, 토하고 설사하는 것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발열·두통·체통이 있으면 다시 구토와 설사가 나고 가슴이 타듯 답답한 경우가 있다. 혹은 단지 구토와 설사만 있으면서 명치와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근육이 뒤틀리면서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단지 헛구역질만 하고 나오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지가 차 들어가고 맥이 끊어지려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 죽을 것만 같은 경우도 있다. 모두 경우에 이 약이 효과가 있다.

香薷(去土) 四兩， 厚朴(去麌皮， 切碎， 姜汁炒令黃)、白扁豆 各二兩.

향유(흙을 제거한다) 4냥, 후박(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생강  
즙에 볶아 누렇게 만든다), 백편두 각 2냥.

右剉散, 每服五錢, 水一盞, 酒一分, 同煎七分, 去滓, 水中沈冷, 連喫二服, 立效, 不拘時候. 治中暑復傷風, 搖搗不省人事者, 宜先服蘇合香圓, 候其甦省, 却以此藥加黃連、羌活各一錢. 暑濕腫滿, 香蘇散合和, 加生姜三片, 木瓜二片, 車前草二根. 伏暑頭疼, 小便澁濁, 加山茵陳、車前草各二根. 霍亂吐利, 加木瓜二片, 蕁香少許, 生姜三片. 傷暑腹痛, 加陳大蓼三寸, 陳壁土一指頭大, 木瓜二片. 臟腑有熱, 便血, 加黃連、厚、枳殼、烏梅各一錢. 小便血, 加瞿麥穗一錢, 車前子一撮, 燈心二十莖. 感暑濕, 手足繃痛痺冷, 合和香蘇散, 每服四錢, 姜三片, 木瓜二片, 陳大蓼三寸煎服, 留滓再加葱葉、橘葉、椒葉、陳大蓼各一握, 水一斗, 煮七分, 先熏後洗, 立效. 脚氣作痛, 行步艱辛, 每料加入木瓜、羌活、炒蒼朾、枳殼去穰、陳皮、半夏、甘草各一兩, 成十味, 每服加生姜三片, 葱白二根. 脾胃不和, 嘔逆惡心, 冒暑心腹脹滿, 去羌活, 加藿香、烏梅各一錢. 壯熱大渴, 肚皮熱或五心熱, 加燈心二十莖, 麥門冬去心、白茅根各一錢, 淡竹葉十皮, 晚禾根淨洗一握. 四時感冒嘔泄, 亦合和香薷散, 每服四錢, 加生姜五片, 木瓜二片. 諸熱毒, 小便赤濁, 每服四錢, 加車前子、黃連去鬚各一錢, 則清利. 以上皆溫服. 暑月煩燥, 潮熱甚, 加茵陳、車前草各二莖, 苦竹葉七皮, 山梔子三枚擘破. 心胸煩燥,

只依本方，宜清煎并冷服。暑月潮瀉，亦加烏梅、車前子一錢，陳米一撮。  
暑月，虛人腹痛嘔泄，加丁香、白朮、炮附子、木瓜各半錢，生姜五片，  
亦名六和湯。解暑和脾胃，加入參、陳皮、白朮、白茯苓、黃耆、木瓜、甘  
草，每料各一兩，亦名十味香薷散。傷暑，單有頭痛，正方加山茵陳，多  
服取效。以上并熱服。常服消暑健脾。或爲末煉蜜爲膏，酒服亦妙。[陳大蓼須  
用家園種者，江邊赤蓼則不用。]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과 물의 10분의 1 정도의 술과  
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한다. 물에 넣고 차갑게 식  
힌 후 두 번 연속으로 복용하면 즉시 효과가 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복용한다. 증서(中暑)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상풍(傷風)까지 걸려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사람은, 먼저 소합향원(蘇合香圓)을 복용하여 깨  
어나기를 기다린 후, 바로 이 약에 황련과 강활 각 1돈을 더하여 복용한  
다. 서습(暑濕)으로 몸이 부어오른 경우에는 향소산(香蘇散)에 생강 3쪽,  
모과 2쪽, 차전초 2뿌리를 더하여 복용한다. 숨은 더위(伏暑)로 머리가 아  
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탁한 경우에는 산인진과 차전초 각 2뿌리를  
더한다. 광란(霍亂)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모과 2쪽, 광향 약간,  
생강 3쪽을 더한다. 상서(傷暑)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진대료 3촌, 진벽토  
손가락 끝머리 크기 정도, 모과 2쪽을 더한다. 장부(臟腑)에 열이 있어 변  
혈이 있는 경우에는 황련、후박、지각、오매 각 1돈을 더한다. 소변에  
피가 나는 경우에는 구맥수 1돈, 차전자 1줌, 등심 20개를 더한다. 서습

(暑濕)에 감염되어 손발이 차고 저리며 아픈 경우에는 향소산과 잘 섞어, 매번 4돈을 생강 3쪽, 모과 2쪽, 진대료 3촌과 함께 넣고 달여 복용한다. 남은 찌꺼기에 총엽·귤엽·초엽·진대료 각 1줌을 더하고 물 1말을 넣어 7할이 되도록 다시 끓인 후, 이 약으로 먼저 훈증하고 이어 씻으면 즉시 효과가 있다. 각기(腳氣)로 아프고 걷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처방에 모과·강활·창출(볶는다)·지각(껍질을 제거한다)·진피·반하·감초 각 1냥을 더하여 10가지 약재가 되게 하고, 매번 생강 3쪽, 총백 2뿌리를 더 넣어 복용한다. 비위가 조화롭지 못하여 구역질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더위를 뒤집어써(冒暑) 명치와 배가 창만한 경우에는, 강활을 제거하고 곽향·오매 각 1돈을 더한다. 심한 열로 극심한 갈증이 나고, 위장 부위가 뜨겁거나 혹 오심열(五心熱)이 있는 경우에는 등심 20개, 맥문동(심을 제거한다), 백모근 각 1돈, 담죽엽 10장, 만화근(깨끗이 씻는다) 1줌을 더한다. 사시감모(四時感冒)로 구토와 설사가 있는 경우에도 향소산(香薷散)과 합쳐 매번 4돈을 복용하되, 생강 5쪽, 모과 2쪽을 더한다. 제반 열독(熱毒)으로 소변이 붉고 탁한 경우에는 매번 4돈에 차전자, 황련(수염을 제거한다) 각 1돈을 더하여 복용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간다. 이상 약들은 모두 따뜻하게 복용한다. 더운 달에 몸이 타듯이 마르고(暑月煩燥) 조열(潮熱)이 심한 경우에는 인진·차전초 각 2줄기, 고죽엽 7장, 산치자(쪼갠다) 3개를 더한다. 가슴 부위가 타듯이 마르는(心胸煩燥) 경우에는 이 처방을 쓰되, 맑게 달인 후 차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 더운 여름에 밀물처럼 설사(暑月潮瀉)가 나는 경우에도 오매·차전자 1돈, 진미 1줌을 더한

다. 더운 여름에 허한 사람이 복통과 구토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향、백출、포부자、모과 각 반 돈, 생강 5쪽을 더한다. 이것을 육화탕(六和湯)이라고도 한다. 더위를 해소하고 비위를 조화시키려면 인삼、진피、백출、백복령、황기、모과、감초를 처방에 각 1냥씩 더한다. 이것을 십미향유산(十味香薷散)이라 한다. 상선(傷暑)에 단지 두통만 있으면 원래 처방에 산인진을 넣고 많이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상의 처방은 모두 뜨겁게 복용한다. 평상시 복용하면 더위를 해소하고 비장을 건강하게 해 준다. 혹 가루 낸 후 달인 꿀에 고(膏)로 만들어 술에 복용해도 역시 좋다. [ 진대료(陳大蓼)는 반드시 집안 정원에서 기르는 종을 쓴다. 강가에 자라는 적료(赤蓼)는 쓰지 않는다. ]

- 【小黃龍圓】

- 【소황룡원】

治伏暑，發熱作渴，嘔吐惡心，及年深暑毒不差。

복서로 인해 열이 나며 갈증이 나고 구토하며 속이 메스꺼운 것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독(暑毒)이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黃連 一斤(去鬚)，酒 二升半。

황련 1근(수염을 제거한다), 술 2승 반.

右將黃連以酒煮乾爲度，焙爲末，用麪糊圓如梧子大。每服三十圓，熟水吞下。又治傷酒過度，臟毒下血或泄瀉，米飲下，食前，日二服。酒及熱物過度，吐血，茅花湯下。

위의 처방은 황련을 술로 마를 때까지 끓인 다음, 볶아서 가루 내고, 밀가루 풀로 오동나무 씨만 한 크기의 환을 빚는다. 매번 30알을 끓인 물로 삼켜 복용한다. 또한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상한 것, 장독으로 인한 하혈이나 설사를 치료한다. 식전에 하루에 두 번 미음에 복용한다. 술과 뜨거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토혈하는 경우에는 모화탕(茅花湯)으로 넘긴다.

- 【來復丹】
- 【내복단】

治上盛下虛，裏寒外熱，伏暑泄瀉如水，及治中暑。[方見后痼冷類.]

상부는 성하고 하부는 허한 것, 속은 차갑고 겉은 뜨거운 것, 복서(伏暑)로 물 같이 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중서를 치료한다. [처방은 뒤의 고냉 부분에 나온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治傷暑外熱內渴，於內更加生薑三片，烏梅一箇，麥門冬三十粒去心，煎服，不拘時候。[方見前傷寒陽證類.]

상서로 외부에는 열이 나고 내부에서는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에 생강 3편, 오매 1개, 맥문동 30알(심을 제거한다)을 더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처방은 앞의 상한 양증 부분에 나온다.]

- 【竹葉石膏湯】
- 【죽엽석고탕】

治伏暑，內外熱熾，煩燥大渴。[方見前傷寒通治類。]

복서(伏暑)로 내외의 열이 모두 지극히 심하여 타듯이 건조하고 갈증이 매우 심한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앞의 상한 통치 부분에 나온다.]

- 【二陳湯】
- 【이진탕】

治傷暑復感冷，及內傷生冷嘔吐。[方見痰飲類。]

상서(傷暑)를 앓고 있는데 더하여 다시 차가운 기운을 감수하였거나 찬 것을 먹어 내상이 생겨, 이것으로 구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담음 부분에 나온다.]

- 【灌熱散】
- 【탁열산】

治傷暑迷悶，及泄瀉霍亂作渴，立效。亦能解諸毒。

상서로 인해 정신이 훈미하고 답답한 증상과, 설사나 꽉란으로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는데 즉효가 있다. 또한 온갖 독을 해독할 수 있다.

白礬、五倍子、烏梅(去核)、甘草 各一兩.

백반、오배자、오매(핵을 제거한다)、감초 각 1냥.

右爲末，入飛羅麪四兩拌勻。每服二錢，新汲水調下。雖平日不敢飲冷者，服之不妨，眞有奇效。爲圓如彈子大，陰乾，冷水調下亦可。

위의 약재를 가루 내고, 비라면(飛羅麪) 4냥을 넣고 고르게 섞는다. 매번 2돈을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먹는다. 평소에 찬 것을 감히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이것을 복용하더라도 별다른 해가 나타나지 않으니, 진실로 기이한 효과가 있다. 탄알 크기의 환으로 만들어 그늘에서 말린 후 찬물에 타서 먹어도 된다.

- 【通苓散】
- 【통령산】

治傷暑，潮熱煩渴，小便不利。[ 方見后泄瀉類. ]

상서로 열이 조수처럼 일정한 시간에 밀려오고 타듯 목이 마르고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뒤의 설사 부분에 나온다.]

每服三錢，水一盞半，燈心二十莖，麥門冬二十粒去心，淡竹葉十皮，車前穗五莖煎，不拘時候服。渴甚，晚禾根少許，白茅根五莖，枇杷葉二皮，去白毛蜜塗微炙，煎服。

매번 3돈을 물 1잔 반에 등심 20줄기, 맥문동 20알(심을 제거한다), 담죽엽 10장, 차전수 5줄기과 함께 넣고 달여 때를 가리지 않고 복용한다. 갈증이 심하면 만화근 조금, 백모근 5줄기, 비파엽 2장(흰 털을 제거하고 꿀을 발라 약간 굽는다)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傷濕

○상습

- 【香蘇散】

- 【향소산】

加蒼朮、川芎、白芷、木瓜對合，各用四錢，生薑三片，煎服。日近遠年

傷濕，倦弱如虛損，多服取效。[方見前傷寒和解類。]

창출、천궁、백지、모과를 더하여 서로 균등하게 넣고 매번 4돈을 생강  
3편과 함께 넣어 달여서 복용한다. 최근의 상습(傷濕)이든 오래된 상습이  
든 관계없이 피곤하고 허약해져 마치 허손과 같은 경우에 많이 복용하면  
효과를 얻는다。[처방은 앞의 상한의 화해(和解) 부분에 나온다.]

- 【黃耆建中湯】

- 【황기건중탕】

治傷濕鼻塞身痛。

상습으로 코가 막히고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黃耆(微炙)、辣桂 各二兩, 甘草(炙) 二兩, 白芍藥 六兩。

황기(약간 볶는다)、육계 각 2냥, 감초(볶는다) 2냥, 백작약 6냥。

右剉散, 每服三錢, 姜四片, 薤一枚煎, 食前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썰어 매번 3돈을 생강 4조각, 대추 1개와 함께 넣고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 【不換金正氣散】

- 【불환금정기산】

治傷濕, 益脾順氣. 加茯苓一兩, 生薑每服三片. [ 方見后時疫類. ]

상습을 치료한다. 비장을 보익하며 기를 순조롭게 한다. 복령 1냥을 더하고, 생강 3조각 넣고 복용한다. [ 방제는 뒤의 시역(時疫) 부분에 나온다.]

- 【朮附湯】

- 【백출부자탕】

治傷濕, 大小便自利. [ 方見后中濕類. ]

상습으로 대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뒤의 중습 부분에 나온다.]

- 【茵陳湯】

- 【인진탕】

治濕氣瘀熱發黃, 小便秘澀, 渴引水漿.

습기와 어열로 인해 황달이 발생하고, 소변이 막히고 시원하지 않으며,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을 치료한다.

茵陳 一兩半 , 大黃 半兩 , 小紅梔子 十枚.

인진 1냥 반, 대황 반냥, 소홍치자 10매.

右剉散, 每服三錢 , 水煎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썰어, 매번 3돈을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腎著湯】

- 【신착탕】

治身重 , 腰冷痺 , 如坐水中 , 形如水狀 , 及不渴 , 小便自利 , 飲食如故 , 病屬下焦. 從身勞汗出 , 衣裏冷濕 , 久而得之. 腰以下冷痛 , 腰重如帶五千錢.

몸이 무겁고 허리가 차고 저리며, 물 속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걸모습이 물의 형상을 보이며, 갈증이 없고 소변이 저절로 나오며, 음식은 평상시와 같은 것을 치료한다. 병이 하초에 발생한 것이다. 몸을 힘들게 써서 땀이 났는데 옷이 차고 습한 상태가 오래되어 이 병을 얻은 것이다. 허리 이하가 차고 아프며, 허리가 무거워 오천 근을 차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

甘草(炙)、白朮 各二兩(去蘆) , 乾薑(炮)、茯苓 各四兩(去皮).

감초(굽는다)、백출 각 2냥(노두를 제거한다), 건강(통째로 굽는다)、복령 각 4냥(껍질을 제거한다).

右剉散, 每服四大錢, 水一盞半, 煎十分, 去渣, 食前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썰어 매번 4대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10분의 1이 될 때 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 【滲濕湯】

- 【삼습탕】

治坐臥濕地, 或爲雨露所襲, 身重脚弱, 關節重疼, 發熱惡寒, 或小便秘澁, 大便滯泄, 或汗出衣裏濕漬得之, 腿膝或腫, 小便利, 反不渴.

습한 땅에 앓고 눕거나, 혹 비와 이슬에 습격 당하여, 몸이 무겁고 다리가 약해지며, 관절이 무겁고 아프고, 발열과 오한이 있거나, 혹 소변이 막히고 보기 힘들며 대변이 묽게 나오고, 혹은 땀이 나서 옷 안이 습하게 젖어서 생긴 것을 치료한다. 다리와 무릎이 혹 붓고, 소변이 잘 나오고, 도리어 갈증은 없다.

蒼朮(米泔浸)、白朮(去蘆)、甘草(炙) 各二兩, 乾薑(炮)、茯苓 各四兩, 陳皮、丁香 各半兩.

창출(쌀뜨물에 담근다)、백출(노두를 제거한다)、감초(굽는다) 각 2냥,  
건강(통째로 굽는다)、복령 각 4냥, 진피、정향 각 반 냥.

右剉散, 每服四錢, 用水一盞半, 生姜三片, 紅棗一枚, 煎至七分, 去渣溫服. 或腹膨腰脚重滯, [ 青木香圓, 熟水下, 兼服. 方見諸疝類. ]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 홍조 1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혹은 배가 부풀고 허리와 다리가 무겁고 물에 젖은 듯할 때는, [ 청목향 원(青木香圓)을 끓인 물로 함께 넘긴다. 처방은 제산(諸疝) 부분에 나온다. ]

- [ { 瓜蒂搐鼻法 } ] :
- [ { 과체축비법 } ] :

治傷濕鼻塞頭疼. 瓜蒂不以多少, 咬咀爲細末, 口含水, 搗一字許入鼻中, 流出黃水卽效.

상습으로 인해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픈 것을 치료한다. 과체를 분량에 관계없이 썰어 고운 가루로 만든다. 입에 물을 머금은 후 1자(字) 정도를 코 속에 불어넣어 뺏아들이면 황수가 흘러나오면서 곧 효과가 있다.

## ○中寒

### ○중한

- 【附子理中湯】
- 【부자이중탕】

治五臟中寒，口噤，四肢強直，失音不語.

오장의 중한(中寒), 즉 한사를 바로 맞아, 입을 악물고 사지가 강직되고, 목소리를 잃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大附子(炮，去皮臍)、人參、乾薑(炮)、甘草(炙)、白朮 各等分.

대부자(통째로 굽고 껌질과 배꼽을 제거한다)、인삼、건강(통째로 굽는다)、감초(굽는다)、백출 각 등분.

右爲剉散，每服四大錢，水一盞半，煎七分，去渣，不以時服。口噤則幹開灌之。

위의 것을 얇게 썬다. 매번 4대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때를 가리지 않고 복용한다. 입을 악 물면 적절히 벌려서 부어 넣는다.

- 【薑附湯】
- 【생강부자탕】

治中寒，卒然暈倒，或吐逆涎沫，狀如暗風，手脚攣搐，口噤，四肢厥冷，或復燥熱。

중한(中寒)으로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혹 거품 같은 침을 토하고, 상태가 마치 암풍(暗風)과 같아 손발이 뒤틀리고 입을 악물고 사지가 차갑고, 혹은 다시 조열(燥熱)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乾薑(炮)，附子(炮，去皮臍)各一兩。

건강(포), 부자(통째로 구어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각 1냥.

右爲剉散，每服四錢，水盞半，煎七分，去渣，食前服。入肝，加木瓜。入肺，加桑白皮。入脾，加白朮。入心，加茯苓。隨證加之。挾風，加防風。兼濕，多加白朮。筋脉牽急，加木瓜。肢節疼痛，加桂心、人參、白朮各等分。仍須暖室添衣被火等圍護。

위의 것을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한 잔 반에 7합이 되도록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복용한다. 한사가 간에 들어가면 모과를 가한다. 폐에 들어가면 상백피를 가한다. 비에 들어가면 백출을 가한다. 심에 들어가면 복령을 가한다. 증상에 따라 가한다. 풍을 함께 끼고 있으면 방풍을 가한다. 습을 함께 끼고 있으면 백출을 많이 가한다. 근맥이 당기고 뻣뻣하면 모과를 가한다. 사지관절이 아프면 계심、인삼、백출을 각각 같은 분량으로 가한다. 그리고 반드시 따뜻한 방에서 옷과 이불을 더하고 화기(火器) 등으로 둘러싸서 간호해야 한다.



○中暑 [ 又名中暍 ]

○중서 [ 또는 중갈이라고도 한다 ]

- 【大黃龍圓】

- 【대황룡원】

治中暑，眩暈，昏不知人，身熱惡寒，頭疼，狀如傷寒，或往來寒熱，

煩燥渴甚，嘔吐泄瀉。常服，去暑毒，分陰陽。

중서(中暑)로 눈앞이 꺼꺼하고 어지러우며 정신이 흔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몸에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들며 머리가 아파 마치 상한과 같고, 혹은 한열이 왕래하고 타듯이 갈증이 심하고 구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평상시 복용하면 서독을 제거하고 음증과 양증으로 명확히 분리해 준다.

硫黃、消石 各一兩，雄黃(通明者)、滑石、白礬 各半兩<sup>1</sup>，寒石麪 四兩。

유황、소석 각 1냥, 웅황(투명한 것)、활석、백반 각 반 냥、한석면 4냥。

右爲末，滴水爲圓如梧桐子大。每服五圓至七圓，漸加至二十圓，新汲水下。昏塞不知人事，以水化開灌之。中暑忌得冷，此藥却以冷水下之，乃熱因寒用，疑者釋之。

위의 약재를 가루 낸 후 물을 떨어뜨리면서 오동 씨 크기로 환을 만든다. 매번 5알에서 7알까지 복용하되 점차 20환까지 늘린다. 새로 길어온 물에 넘긴다.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는 물에 녹여서 입에 흘려 넣는다. 중서에는 차가운 것을 금하는데 이 약은 반대로 찬물로 복용하니, 이는 열증을 한법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의혹이 들면 이치를 잘 연구해 봐라.

- 【益元散】

- 【익원산】

治中暑，身熱嘔吐，熱瀉赤痢，癃閉澀痛。利小便，益精氣，通九竅六府，消畜水，止渴，除煩熱心燥，百藥酒食等毒。解疫癟及兩感傷寒。及婦人下乳催生，兼吹乳、乳癰。孕婦莫服。

중서로 몸에 열이 나고 구토하고, 열로 인한 설사하거나 붉은 이질을 하 고, 소변이 막혀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보기 힘들고 아픈 것을 치료 한다.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정기를 보익하며, 구규(九竅)와 육부(六府) 를 통하여 하고, 쌓인 물기를 소산시키고 갈증을 없애 주고, 타는 듯한 열 감과 가슴의 답답함을 제거하며, 온갖 약으로 인한 독성과 술독 같은 것 도 제거한다. 역려(疫癟) 및 양감상한(兩感傷寒)을 해결한다. 또한 부인에게 젖이 잘 나오도록 하고 출산 때 아기가 빨리 나오게 한다. 부인의 취 유(吹乳)와 유옹(乳癰)도 치료한다. 임신 중인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된다.

白滑石 六兩 , 甘草 一兩(炙).

백활석 6냥, 감초 1냥(굽는다).

右爲極細末, 每服三錢, 蜜少許, 溫水調下, 無蜜亦得, 日三服. 欲冷, 新汲水調下. 發汗, 煎葱白、豆豉湯并三四服. 此藥解散, 热甚多服, 無害有益.

위의 약재를 극히 세밀한 가루로 만든다. 매번 3돈을 꿀을 조금 넣고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한다. 꿀이 없어도 괜찮다.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차갑게 복용하고 싶으면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복용한다. 발한시키려면 총백과 두시를 달인 탕에 총 3 - 4번 복용한다. 이 약은 해산하는 효능이 있으니 열이 심할 때 많이 복용해도 해롭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

- 【消暑圓】

- 【소서원】

治中暑煩渴, 暈眩, 寒熱, 煩燥悶亂, 或似欲絕者.

증서로 인해 타 듯한 갈증을 나고,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하며, 한열이 왔다 갔다 하고, 타듯이 건조하고 답답하고, 혹 기절할 것 같은 것을 치료한다.

半夏 一斤(湯洗七次, 去滑), 茯苓(去皮)、甘草(生) 各半斤.

반하 1근(끓는 물에 일곱 번 씻고 미끄러운 것을 제거한다), 복령(껍질을 제거한다)、감초(생것) 각 반 근.

右爲末，姜汁麪糊爲圓如梧桐子大。每服三十圓，新汲水下。中暑爲患，藥下即甦。夏中常服，止渴利小便。若痰飲停滯，中脘不快，頭眩喜嘔，姜湯吞下。 [ 正名生料消暑圓。 ]

위의 약재를 가루 내어 생강즙과 밀가루 풀로 오동 씨 크기로 환을 빚는다. 매번 30알을 새로 길어온 물에 복용한다. 중서로 병이 생겼을 때 이 약을 복용하면 즉시 소생한다. 여름철에 상복하면 갈증을 멈추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만약 담음이 정체되어 중완이 불쾌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하려 할 때는 생강 달인 물로 삼켜 복용한다. [ 정확한 명칭은 생료 소서환(生料消暑圓)이다. ]

- 【皂筴湯】

- 【조협탕】

治中暑不省人事。

중서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치료한다.

猪牙皂筴 一兩(燒灰)，甘草 一兩(微炒)。

저아조협 1냥(태워 재로 만든다), 감초 1냥(약간 볶는다).

右爲細末，每服二錢，溫熱水調下。

위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매번 2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한다.

- 【來復丹】 [ 方見后痼冷類. ]
- 내복단 [ 처방은 뒤에 나오는 고냉(痼冷) 부분에 있다. ]

治中暑昏迷，霍亂吐瀉。每服五十圓，米飲吞下。五苓散調下亦可。[ 見傷暑

類. ] 或水研灌亦效。

증서로 인한 정신 혼란과, 꽉찬으로 인한 토사를 치료한다. 매번 50알을 복용하되 미음으로 삼켜 내린다. 오령산에 타서 복용해도 좋다. [ 상서 부분에 나온다. ] 또는 물에 갈아서 조금씩 흘려 넣어 주어도 역시 효과가 있다.

- 【白虎湯】
- 【백호탕】

治中暑手足微冷，煩渴，四肢不痛。[ 方見前傷寒通治類. ]

증서로 손발이 약간 차갑고 번열과 갈증이 있지만 사지가 아프지는 않은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앞에 나오는 상한의 통치 부분에 나온다. ]

- 【橘皮竹茹湯】
- 【귤피죽여탕】

治中暑痰逆，惡寒。[ 方見后咳逆類. ]

증서로 인해 가래가 넘어오면서 오한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뒤의 해역 부분에 나온다.]

- 【竹葉石膏湯】

- 【죽엽석고탕】

治中暑不惡寒, 煩渴. [方見前傷寒通治類.]

증서를 앓고 있으나 오한은 없고 번갈만 있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앞의 상한의 통치 부분에 나온다.]

- 【五苓散】

- 【오령산】

治中暑頭疼, 惡心煩燥, 心下不快. [方見傷暑類.]

증서로 인한 두통, 오심, 번조, 심하불쾌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상서 부분에 나온다.]

- 【香薷散】

- 【향유산】

治中暑霍亂吐瀉. [方見傷暑類.]

증서로 인한 꽉란과 토사를 치료한다. [처방은 상서 부분에 나온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治中暑煩熱口乾，候極冷服之。[方見傷寒陽證類。]

증서로 인한 번열과 입마름을 치료한다. 약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용한다。[처방은 상한의 양증 부분에 나온다。]

- 【白虎加人參湯】
- 【백호가인삼탕】

治太陽中渴，其脈弦細芤遲，小便已，洒然毛聳，口前開板齒者。何故洒然毛聳？緣腠理司開闔，寒則皮膚急，腠理閉；熱則皮膚緩，腠理開。開則洒然寒，閉則熱而悶。[方見傷寒通治類。]

태양증갈병을 치료한다. 증상은 맥이 현세규지(弦細芤遲)하고, 소변을 본 후에 오싹하게 털이 곤두서며, 입의 앞니가 건조한 것을 치료한다. 어째서 오싹하게 털이 곤두서는가? 주리가 개합을 관장하기 때문인데, 추우면 피부가 긴장하여 주리가 닫히고, 더우면 피부가 이완되어 주리가 열린다. 열리면 오싹하게 춥고, 닫히면 뜨겁고 답답하다。[처방은 상한의 통치 부분에 나온다。]

1. 各半兩：후세 가필 ↪

## ○中濕

### ○중습

- 【加味朮附湯】
- 【가미출부탕】

治中濕，脉沈而微緩，濕喜歸脾，流於關節，中之多使人腹脹脹，倦怠，四肢關節疼痛而煩，或一身重著。久則浮腫喘滿，昏不知人。挾風，眩暈嘔噦。兼寒則攣拳掣痛。治之不得猛發汗、灼艾、通泄，惟利小便爲佳，此方主之。及治大小便皆自利。

중습(中濕)을 치료한다. 맥은 침(沈)하면서 미완(微緩)하다. 습은 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관절로 흘러간다. 중습에 걸리면 사람으로 하여금 배가 팽창하게 하고 권태감을 느끼게 하며, 사지 관절이 아프고 답답하거나 온몸이 무겁고 찝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오래되면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며 가슴이 그득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풍이 같이 들어오면 현훈하고 구역질한다. 한이 같이 들어오면 경련을 일으키고 당기며 뻣뻣하면서 아프다. 이를 치료할 때는 맹렬하게 발한시키거나 뜸을 뜨거나 땀을 내서는 안 되고, 오직 소변이 시원히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 처방을 주로 쓴다. 또한 대소변이 모두 저절로 잘 나오도록 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

白朮(去蘆)、甘草(炒) 一兩， 附子(炮) 一兩半， 赤茯苓 一兩.

백출(노두를 제거한다)、감초(볶는다) 1냥, 부자(통째로 굽는다) 1냥 반,  
적복령 1냥.

右剉散, 每服五錢, 薑七片, 棗二枚煎, 日三服. 纔見身瘦, 又三服, 當  
如冒狀, 勿怪, 蓋朮、附并行皮中, 逐水氣故爾. 法合加桂一兩, 大便堅,  
小便利則勿加.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생강 7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달여  
서 하루에 3번 복용한다. 이제 막 몸이 저린 증상이 보이면 또 3번 복용하  
면 마치 무엇인가에 덮인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  
아라. 대개 백출과 부자가 함께 피부 속으로 들어가 수기를 몰아내기 때  
문이다. 치법상에서 보면 계피 1냥을 더해야 한다. 하지만 대변이 단단하  
고 소변이 잘 나오면 더하면 안 된다.

- 【白朮酒】

- 【백출주】

治中濕, 口噤, 不知人.

증습으로 입이 악물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白朮 半兩(去蘆).

백출 반 냥(노두를 제거한다).

右酒三盞，煎一盞，頓服。不能飲酒，以水代，日三服，夜一服。

위 약재를 술 3잔이 1잔이 되도록 달여서 한 번에 복용한다. 술을 마실 수 없으면 물로 대신하여 낮에 3번, 밤에 1번 복용한다.

- 【甘草附子湯】

- 【감초부자탕】

治中濕，小便不利，大便自利。

중습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은 저절로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附子(炮) 一箇(七錢淨者)，甘草(炙) 各一兩，辣桂(去麌皮) 二兩。

부자(통째로 굽는다) 1개(7돈 정도가 되는 깨끗한 것), 감초(굽는다) 각 1냥, 육계(거친 껍질을 제거한다) 2냥.

右剉散，每服三錢，水一盞半，薑七片煎，食前微溫服。汗出，加防風；悸氣，加茯苓，各二錢。

위의 약재를 적당히 썬다. 매번 3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7편과 함께 넣고 달여 식전에 미지근하게 하여 복용한다. 땀이 나면 방풍을 더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복령을 더하되 각 2돈씩 넣는다.

## ○ 四氣兼中

### ○ 사기겸중

- 【附子湯】

- 【부자탕】

治五臟中風寒，手足不仁，口面喎斜，昏暈，失音，眼目瞤動，牙車緊急，不得轉動。

오장에 풍과 한을 바로 맞아, 손발이 감각이 없고, 입과 얼굴이 비뚤어지며,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우며, 목소리를 잃고, 눈이 떨리며, 턱관절을 악물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附子(炮，去皮臍)、桂心 各半兩, 細辛(去苗)、防風(去叉)<sup>1</sup>、人參(去蘆)、乾薑(炮) 各六錢。

부자(통째로 굽고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계심 각 반 냥, 세신(싹을 제거한다), 방풍(가지를 제거한다), 인삼(노두를 제거한다), 건강(통째로 굽는다) 각 6돈。

右剉散, 每服四錢，水一盞半，薑五片，棗一枚，煎七分，食前服。或爲末，酒調二錢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1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 식전에 복용한다. 혹은 가루로 만들어 술에 2돈을 타서 복용한다.

- 【防風湯】

- 【방풍탕】

治中風挾暑，卒然暈倒，面青黑，四肢緩弱，喜伸欠，口喎斜，四肢不仁，好笑。

증풍에 더위가 겹쳐,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지고 얼굴이 청흑색이 되며, 사지가 축 처지고 늘어져 약해지며, 기지개와 하품을 자주 하고, 입이 비뚤어지며, 사지에 감각이 없고, 잘 웃는 것을 치료한다.

防風(去<sup>2</sup>叉)、澤瀉、桂心、杏仁(麵炒，去皮尖)、乾薑(炮)、甘草(炙)各等分。

방풍(잔 가닥은 제거한다)、택사、계심、행인(밀가루로 볶고 껌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건강(통째로 굽는다)、감초(굽는다) 각 등분。

右剉散，每服四錢，水一盞半，煎七分，食前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 【生附白朮湯】

- 【생부자백출탕】

治中風濕，昏悶恍惚，脹滿身重，手足緩縱，熱熱自汗，失音不語，便利不禁。

풍습(中風濕)을 맞아, 혼미하고 답답하여 정신을 잃고, 배가 불러 오르고 몸이 무거우며, 손발이 늘어져 힘이 없고, 땀이 출출 저절로 냄며, 목소리를 잃어 말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附子(生，去皮臍)、薑各半兩，白朮一兩，甘草(炙)一分。

부자(생것.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생강 각 반 양, 백출 1냥, 감초(굽는다) 1푼.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 【附子麻黃湯】

- 【부자마황탕】

治寒濕所中，昏暈緩弱，或腰背強急，口喎斜，語音混濁，心腹脹脹，氣上喘，不能動轉。

한습에 제대로 맞아, 정신이 훈미하고 어지러우며 축 늘어져 힘이 없고,  
혹 허리와 등이 강직되고 뻣뻣하며, 입이 비뚤어지고 말소리가 혼탁하며,  
가슴과 배 부위가 그득히 불러 오르고, 기가 위로 치밀어 숨이 차고, 몸을  
움직이고 돌릴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附子(炮, 去皮臍)、麻黃(去節, 湯洗)、白朮(去蘆)、乾薑、甘草(炙)、人參  
各等分.

부자(통째로 구어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마황(마디를 제거하고 끓인  
물에 씻는다)、백출(노두를 제거한다)、건강、감초(굽는다)、인삼 각  
등분.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  
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 【苓朮湯】

- 【영출탕】

治冒暑遭雨, 暑濕鬱發, 四肢不仁, 半身不遂, 骨節離解, 緩弱不收. 或  
入浴暈倒, 口眼喎斜, 手足顛曳, 皆濕溫類也.

더위를 덮어쓰고 여기에 비까지 맞아 서습(暑濕)이 울체되어 발생하는,  
사지가 감각을 잃고, 반신불수가 되며, 뼈와 관절이 분리된 듯 늘어지고  
연약하여 수축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혹은 목욕 중에 현기증으로 쓰러  
지고 구안와사가 생기고, 손발이 축 처져 끌리는 것들은 모두 습온의 유  
형이다.

附子(炮, 去皮臍)、茯苓、白朮、乾薑(炮)、澤瀉、桂心 各等分.

부자(통째로 구어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복령、백출、건강(통째로  
굽는다)、택사、계심 각 등분.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  
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1. 叉 : 叉 ※《四庫全書》. 의미적으로 叉가 적절함 ↪

2. 叉 : 叉 ※《四庫全書》. 의미적으로 叉가 적절함 ↪

## ○四氣相感

### ○사기상감

- 【麻黃白朮湯】
- 【마황백출탕】

治寒濕，身體煩疼，無汗，惡寒發熱者。

한습으로 몸이 답답하고 아프며 땀이 나지 않고 오한과 발열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麻黃(去節) 三兩, 桂心 二兩, 甘草(炙) 一兩, 杏仁 二十粒(去皮尖), 白朮 四兩  
(去蘆).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3냥, 계심 2냥. 감초(굽는다) 1냥, 행인 20알(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백출 4냥(노두를 제거한다).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溫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식전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 【桂枝附子湯】
- 【계지부자탕】

治風濕相搏，身體煩疼，掣痛，不得屈伸，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①，或身微腫。

풍습이 몸에 들러붙어 서로 싸워, 몸이 답답하고 아프며, 당기면서 아파 굽히고 펼 수 없고, 땀이 나며, 숨이 짧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바람을 싫어하여 옷을 벗고 싶어 하지 않거나, 몸이 약간 붓는 것을 치료한다.

桂枝(去皮) 四兩，白朮(去蘆)、附子(炮，去皮臍) 各三兩，甘草(炙) 二兩。

계지(껍질을 벗긴다) 4냥，백출(노두를 제거한다)、부자(통째로 굽는다) 각 3냥，감초(굽는다) 2냥。

右剉散，每服四錢，水一盞半，薑五片，棗二枚，煎七分，空心溫服。或大便祕，則去桂。小便不利，悸氣，加茯苓三兩。痺，加防己四兩。腹痛，加芍藥四兩。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공복에 따뜻하게 복용한다. 만약 대변이 막히면 계피를 제거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복령 3냥을 더한다. 비증이 있으면 방기 4냥을 더한다. 복통이 있으면 작약 4냥을 더한다.

- 【防己黃耆湯】
- 【방기황기탕】

治陽風濕寒，脉浮緊細，身重，汗出惡風。并治風水，脉浮身重，不渴。

몸의 바깥쪽이 풍습한에 침입 당한 것을 치료하는데, 맥이 부긴세(浮緊細)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고 바람을 싫어한다. 아울러 풍수(風水)를 치료하는데, 맥이 부하고 몸이 무거우며 갈증이 없다.

防己 四兩，黃耆 四兩(去蘆)，甘草(炙) 二兩，白朮 三兩(去蘆)。

방기 4냥, 황기 4냥(노두를 제거한다), 감초(굽는다) 2냥), 백출 3냥(노두를 제거한다).

右剉散, 每服五錢, 水盞半, 姜五片, 棗二枚, 煎七分, 去滓空心服。喘者, 加麻黃一兩。胃中不和, 加芍藥二兩。氣上衝, 加桂一兩。有陳寒, 加細辛一兩。服後當如蟲行皮中, 從腰以下如冰, 後坐被上, 又以被遶腰以溫下, 微汗, 瘋。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한 잔 반에 생강 5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복에 복용한다. 숨이 찬 경우에는 마황 1냥을 더한다. 위(胃)가 조화롭지 않으면 작약 2냥을 더한다. 기가 위로 치받으면 계피 1냥을 더한다. 묵은 한기가 있으면 세신 1냥을 더한다. 복용한 후에는 마치 벌레가 피부 속을 기어가는 것 같고, 허리 아래로는 얼음처럼 차가워질 것이다. 그 후 이불 위에 앓아서 다시 이불로 허리를 둘러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면 미미하게 땀이 나면서 낫는다.

- 【白朮茯苓乾薑湯】

- 【백출복령건강탕】

治伏暑中風濕，煩渴引飲，心腹疼，燥悶口乾，面垢，洒洒惡寒，淅淅惡風，微汗，飢不能食者。

복서(伏暑)가 있는데 풍습(風濕)까지 제대로 맞아, 타듯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가슴과 배 부위가 아프며, 입안이 타듯 마르고, 안색이 더러워지고, 오싹오싹 오한이 나며, 으슬으슬하여 바람 맞는 것을 싫어하고, 약간 땀이 나며, 배고프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白朮(去蘆)、乾薑、茯苓、細辛、桂心、乾葛、甘草(炙)、橘皮、烏梅、京鼓。

백출(노두를 제거한다)、건강、복령、세신、계심、건갈、감초(볶는다)、굴피、오매、경두시。

右等分爲末，每服二錢，白湯點下。

위의 약재를 등분하여 가루 내어, 매번 2돈을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한다.

- 【茯苓白朮湯】

- 【복령백출탕】

冒暑毒，加以著濕，或汗未乾卽浴，皆成暑濕。

더위의 독을 뒤덮어 썼는데 여기에 습기까지 들려붙었거나, 혹은 땀이 마르지 않았는데 곧바로 목욕하면, 모두 서습(暑濕)이 된다.

茯苓、乾薑(炮)、甘草(炙)、白朮、桂心 各一兩.

복령、건강(통째로 굽는다)、감초(굽는다)、백출、계심 각 1냥.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 【萎蕤湯】

- 【위유탕】

治風溫, 兼療冬溫, 及春月中風、傷寒, 發熱, 頭眩痛, 咽喉乾, 舌強, 胸內疼痛, 痘滿, 腰背拘急.

풍온(風溫)을 치료하고, 겹하여 동온(冬溫)도 치료한다. 또한 봄철의 증풍과 상한도 치료한다. 증상은 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며, 인후가 마르고 혀가 굳어지며, 가슴속이 아프고, 막힌 듯 답답하고 그득하고, 허리와 등이 당기고 뻣뻣하다.

葛根、麻黃(湯泡焙乾, 秤去節)、甘草(炙)、白薇、川芎、羌活、杏仁 各半兩(去皮尖), 石膏 一兩(碎), 萎蕤 三分, 青木香 一分.

갈근·마황(끓는 물에 담갔다가 불에 찌어 말린 다음 마디를 제거한다)  
·감초(굽는다)·백미·천궁·강활·행인 각 반 양.(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석고 1 양(잘게 부순다), 위유 3푼, 청목향 1푼.

右剉散,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七分, 食前服. 青木香冬用一兩, 春半  
兩. 渴, 加括樓根二片.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  
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청목향은 겨울에는 1양을 쓰고 봄에는 반 양을 쓴  
다. 갈증이 있으면 꿀루근 2편을 더한다.

<sup>1</sup>. ⑩ : 衣 ※《四庫全書》 ↪

## ○痰瘡

### ○학질

[ { 風證 } ]

[ { 풍증 } ]

- 【加減桂枝湯】
- 【가감계지탕】

治先熱後寒，煩燥，自汗惡風，名溫瘡。

먼저 열이 나고 이후 춥고, 타듯 마르면서 답답하고, 저절로 땀이 나면서 바람을 싫어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를 온학(溫瘡)이라고 한다.

石膏 四兩半，知母 一兩半，甘草(炙) 半兩，桂枝 一兩，粳米 一合。

석고 4냥 반, 지모 1냥 반, 감초(굽는다) 반 냥, 계지 1냥, 맵쌀 1홉.

右剉散，每服四錢，水一盞半，煎七分。未發前進三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달여서 7합이 되면 복용한다. 아직 발병하기 전에 3번 복용한다.

- 【白朮散】
- 【백출산】

治傷風不留經絡，與衛氣相併，病以日作，寒熱交煎。

상풍에 걸렸는데 풍이 경락에 머물지 않고 위기(衛氣)와 서로 들러붙어, 병이 하루 단위로 발작하여 한번은 발열을 하고 한번은 오한을 느끼는 것을 치료한다.

麻黃 (去節)、白朮 (去蘆)、茯苓、桂心 各一兩，陳皮、青皮 (去穰)、桔梗 (去蘆)、白芷、甘草、半夏麴、紫蘇、烏梅 各三分。去核，乾薑 半兩。

마황 (마디를 제거한다)、백출(노두를 제거한다)、복령, 계심 각 1냥, 진피、청피(안쪽 흰 부분을 제거한다)、길경(노두를 제거한다)、백지、감초、반하곡、자소、오매 각 3푼(씨를 제거한다), 건강 반 냥。

右剉散, 每服四錢，水二盞，姜三片，棗二枚，煎七分。當發日空心一服，臨發一服尤妙。亦治時疫。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2잔에 생강 3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다. 발병할 날에 빈속으로 1회 복용하고 발병 직전에 1회 복용하면 더욱 묘한 효과가 있다. 또한 시역(時疫)도 치료한다.

[ { 寒證 } ]

[ { 한증 } ]

- 【五積散】

- 【오적산】

治體虛作瘡，先寒後熱，寒則湯火不能溫，熱則冰雪不能冷，惡寒無汗。

[ 方見傷寒陰證類. ]

체질 허약하여 학질을 앓게 되어, 먼저 춥고 이후 열이 나며, 추위를 느낄 때는 끓는 물이나 불로도 따뜻하게 할 수 없고, 열날 때는 얼음이나 눈으로도 차갑게 할 수 없으며, 오한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상한의 음증 부분에 나온다. ]

- 【養正丹】[ 見痼冷類. ] 、【薑附湯】、【附子理中湯】. [ 并見中寒類. ]
- 양정단 [ 고냉 부분에 나온다 ] 、강부탕 、부자이중탕 [ 모두 중한 부분에 나온다 ]

總治寒瘡。

모든 한학(寒瘡)을 치료한다.

[ { 暑證 } ]

[ { 서증 } ]

- 【香薷散】

- 【향유산】

治但熱不寒，陰氣孤絕，陽氣獨發，少氣煩冤，手足熱而欲嘔，兼渴。

[ 方見傷暑類. ]

단지 열만 나고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음기가 고립되어 끊어져 양기가 홀로 폭등하여 기운이 없으면서 가슴이 지극히 답답하고, 손발이 뜨겁고 구토하려 하고, 아울러 갈증이 난다. [ 처방은 상서(傷暑) 부분에 나온다. ]

一方加黃連，每料二兩，名黃連香薷散，治暑瘡獨熱，燥煩，大渴引飲，小便不利，或背寒面垢，每服加燈心二十莖，麥門冬去心二十粒，淡竹葉七皮，車前草二根，晚禾根一握，檳榔一箇切片煎，不拘時候。

어떤 처방은 황련을 더하고 매 처방 당 2냥을 넣고 황련향유산이라 불린다. 서학(暑瘡)으로 단지 열만 나면서 타듯 메말라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지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혹 등이 차고 얼굴에 때가 끼는 것을 치료한다. 매번 등심 20줄기, 맥문동 20알(심을 제거한다), 담죽엽 7장, 차전초 2뿌리, 만화근 한 줌, 빙랑 1개(얇게 썬다)를 더 넣고 달여 복용한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治傷暑發瘡，熱多寒少，或但熱不寒，咳嗽煩渴，小便赤。每服加生薑三片，烏梅一箇，麥門冬二十粒去心，地骨皮少許煎。溫服，不拘時候。熱盛大腑不通，加大黃、枳殼各一錢，一服立效。[方見傷寒陽證類。]

상서로 인한 학질 증상이 나타나,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은 적게 느끼고, 혹은 단지 열만 있고 오한을 느끼지 않으며, 기침하고 타듯 갈증을 느끼고, 소변이 붉은 것을 치료한다. 매번 생강 3편, 오매 1개, 맥문동 20알(심을 제거한다), 지골피 조금을 더 넣고 달여 복용한다. 따뜻하게 복용하고 시간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열이 성하여 삼초가 통하지 않으면 대황·지각을 각 1돈씩 더하여 한 번 복용하면 즉시 효과가 난다。[처방은 상한의 양증 부분에 나온다]

- 【清脾湯】

- 【청비탕】

治瘡瘍，脉來弦數，但熱不寒，或熱多寒少，膈滿能食，口苦舌乾，心煩渴大，小便黃赤，大腑不利。

단학(瘡瘍)으로 막은 현삭(弦數)한데, 다만 발열만 있고 오한을 나지 않고, 혹은 발열은 심한데 오한은 심하지 않으며, 흉격이 그득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입이 쓰고 혀가 마르며, 가슴이 타듯 답답하고 갈증이 심하며, 소변이 황적색이고, 대변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치료한다。

青皮(去白)、厚朴(去麌皮, 姜汁炒)、白朮(去蘆)、草果仁、柴胡(去蘆)、茯苓(去皮)、半夏(湯洗七次)、黃芩、甘草(炙, 各等分). 或加人參亦可.

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후박(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볶는다)、백출(노두를 제거한다)、초과인、시호(노두를 제거한다)、복령(껍질을 제거한다)、반하(끓는 물에 일곱 번 씻는다)、황금、감초(굽는다) 각 등분. 혹은 인삼을 더해도 좋다.

右剉散, 每服四錢, 水一盞半, 姜五片, 煎七分. 不拘時溫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과 함께 넣고 7할 이 될 때까지 달인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 【消暑圓】

- 【소서원】

治傷暑發瘡, 痰多, 煩悶眩暉. 每服五十圓, 淡薑湯吞下. [ 方見中暑類.  
與前藥相兼, 多服取效. ]

상서로 인한 학질로 가래가 많고 타듯이 답답하며 어지러운 것을 치료한다. 매번 50알을 담담한 생강탕으로 넘긴다. [ 처방은 중서 부분에 나온다. 앞의 약과 함께 겸용하여 많이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 ]

[ { 濕證 } ]

[ { 습증 } ]

- 【朮附湯】
- 【백출부자탕】

治寒熱身重，骨節煩疼，脹滿，濶濶自汗，喜嘔。因汗出復浴，濕舍皮膚，及冒雨濕所致。

발열과 오한이 교대로 왔다갔다하고, 몸이 무거우며, 뼈마디가 답답하고 아프며, 그득히 부풀어오르고, 촉촉하게 저절로 땀이 나며, 자주 구토하려 하는 것을 치료한다. 땀이 난 후에 다시 목욕하여 습기가 피부에 머물거나 비를 맞아 습기에 노출되면 생긴다.

- 【除濕湯】
- 【제습탕】

治同上。[二方見中濕傷濕類。除濕湯即滲濕湯。]

치료는 위와 같다。[ 두 처방은 중습과 상습 부분에 나온다. 제습탕은 곧 삼습탕이다。]

- 【五苓散】
- 【오령산】

治傷濕小便不利，發瘡。[方見傷暑類。]

상습으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학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처방은 상서 부분에 나온다。]

[ { 食證 } ]

[ { 식증 } ]

- 【二陳湯】

- 【이진탕】

治傷食發瘡痰多.

상식(傷食)으로 발생한 학질이 생기고 담이 많은 것을 치료한다.

陳皮、半夏(製)各五兩, 白茯苓三兩, 甘草(炙)一兩.

진피、반하(법제한다) 각 5냥, 백복령 3냥, 감초(굽는다) 1냥.

右剉散, 每服三錢, 薑五片, 烏梅一箇, 煎服. 寒多者, 加草果. 热多, 加前胡、青皮、檳榔、縮砂、白豆蔻之類, 隨意增減.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3돈을 생강 5편, 오매 1개와 함께 달여서 복용한다. 한기가 많은 경우에는 초과를 더하고, 열기가 많은 경우에는 전호、청피、빈랑、축사、백두구 등의 약재를 적절히 증감한다.

- 【小清脾湯】

- 【소청비탕】

治胃瘡，發作有時，先覺伸欠，乃作寒慄，鼓振頤頷，中外皆寒，腰背俱痛。寒戰既已，內外皆熱，頭疼如破，渴欲飲冷。或痰聚胸中，煩滿欲嘔。或先熱後寒，先寒後熱，寒多熱少，寒少熱多。或寒熱相半，或但熱不寒，但寒不熱。或隔日一發，一日一發，或三五日一發者，悉主之。

위학(胃瘡)을 치료한다. 학(瘡)의 발작에 일정한 시간이 있고, 먼저 기지개와 하품을 느끼고 이어서 심한 오한이 일어나며, 턱과 아래턱이 떨리고 몸의 안팎이 모두 춥고 허리와 등이 모두 아프다. 심한 오한이 이미 끝나면 안팎으로 모두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갈증이 나서 찬 것을 마시고 싶어한다. 혹은 담이 가슴 가운데 모여서 타듯이 답답하고 그득하여 토하고 싶어하며, 혹은 먼저 열이 나고 나중에 춥거나, 먼저 춥고 나중에 열이 나거나, 오한은 매우 심한데 열이 적거나, 오한은 심하지 않는데 열이 심한 경우도 있다. 혹은 한열이 반반이거나, 혹은 다만 열만 있고 춥지 않거나, 다만 춥기만 하고 열이 나지 않는다. 혹은 하루 걸러 한번 발작하거나, 하루에 한 번 발작하거나, 혹은 3 - 5일에 한 번 발작하는 것도 있는데, 모두 이것으로 치료한다.

厚朴(製同前) 四兩，烏梅(去核)、半夏(湯去滑)、青皮、良薑 各二兩，草果(去皮) 一兩，甘草(炙) 半兩。

후박(제법은 앞과 같다) 4냥, 오매(씨를 제거한다), 반하(끓는 물로 미끄러운 것을 제거한다)、청피、양강 각 2냥, 초과(껍질을 제거한다) 1냥, 감초(굽는다) 반 냥.

右剉散，每服四錢，水二盞，姜三片，棗一枚，煎七分，去滓。未發前併三服。忌生冷油膩時果。此藥溫脾化痰，治胸膈痞悶，心腹脹滿，噫醋吞酸，自可常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2잔에 생강 3편, 대추 1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한다. 발병하기 전에 모두 3번 복용한다. 생것、찬 것、기름진 것、제철 과일을 금한다. 이 약은 비장을 따뜻하게 하고 담을 삭이기 때문에, 가슴과 명치 사이가 막혀 답답하고, 심복부가 그득히 불러 오르고, 트림하며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치료한다. 평상시에도 복용할 수 있다.

- 【紅圓子】
- 【홍원자】

治食瘡、食積、氣滯腹脹。

식학、식적、기체로 인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치료한다.

京三稜(水浸軟，切片)、蓬莪朮(煨)、青皮(去白)、陳皮(去白)各五兩，胡椒、乾薑(炮)各三兩。

경삼릉(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여 편으로 썬다)、봉아출(잿불에 묻어 굽는다)、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각 5냥, 호초、건강(통째로 굽는다) 각 3냥。

右爲末，米醋煮米粉糊圓，梧桐子大，礬紅爲衣。每服五十圓，淡姜湯下，或二陳湯下。[方見前。]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들고, 쌀식초로 쌀가루 풀을 끓여서 오동 씨 크기로 환을 빚는 후, 백반과 홍화로 옷을 입힌다. 매번 50알을 담담한 생강탕으로 복용하거나 이진탕으로 복용한다. [처방은 앞에서 나온다.]

[ { 七情 } ]

[ { 칠정 } ]

- 【四獸飲】
- 【사수음】

治五臟氣虛，喜怒不節，勞逸兼并，致陰陽相勝，結聚痰飲，與衛氣相搏，發爲瘧疾。

오장의 기가 허한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노여움이 절제되지 않고 노동과 휴식을 절도 있게 하지 않아, 음양이 돌아가며 서로를 악화시켜 담음이 한곳에 몰려 뭉치게 하고, 위기(衛氣)와 서로 들러붙어 싸워, 학질이 발병하게 된 것을 치료한다.

人參(去蘆)、白朮(去蘆)、白茯苓(去皮)、甘草、橘紅、半夏、草果(去皮)、烏梅(去核)、紅棗、生薑。

인삼(노두를 제거한다)、백출(노두를 제거한다)、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감초、귤홍、반하、초과(껍질을 제거한다)、오매(씨를 제거한다),  
홍조, 생강.

右等分，剉散，每用半兩，以鹽少許淹少時，厚皮紙裹，水濕，慢火煨香熟，取出，用水二盞煎。未發前服。

위의 약재를 같은 분량으로 썬다. 매번 반 냥을 소금을 조금 넣어 잠시 절인 후 두꺼운 종이로 싸서 물에 적셔 약한 불로 향이 나오고 익을 때까지 구워 낸다. 꺼내어 물 두 잔으로 달인다. 병이 발작하기 전에 복용한다.

[ {痰瘡} ]

[ {담학} ]

- 【枳梗半夏湯】

- 【길경반하탕】

除痰下氣，治胸脇脹滿，寒熱嘔噦，心下堅痞，短氣煩悶，痰逆惡心，飲食不下。

담을 제거하고 기를 내려가게 하여,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히 차 오르고, 한열이 왔다갔다하며 토하고 딸국질하고, 명치 아래가 단단하고 막히며, 숨이 짧고 타듯이 답답하며, 담이 거슬러 올라 속이 메스꺼우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桔梗(剉, 微炒) 五兩, 陳皮(去白) 五兩, 半夏(湯洗七次) 五兩, 枳實(去穰, 炒) 二兩半.

길경(썰어서 약간 볶는다) 5냥, 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5냥, 반하(끓는 물에 일곱 번 씻는다) 5냥, 지실(속을 제거하고 볶는다) 2냥 반.

右剉散, 每服二錢, 水一中盞, 生姜五片, 烏梅一箇, 煎至七分, 溫服,  
不拘時候.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2돈을 물 1중잔에 생강 5편, 오매 1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다.

- 【半夏圓】
- 【반하원】

治瘡, 咳嗽涎盛, 痰滿煩悶, 咽膈不利, 嘔吐惡心, 神思昏憤, 心忪面  
熱, 并皆治之.

학질을 치료한다. 기침하며 가래가 많이 차고, 명치가 막혀 답답하며, 목  
구멍과 가슴이 시원하지 않고, 구토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정신이 혼미하  
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을 모두 치료한다.

半夏 十六兩(湯洗去滑, 姜汁淹一宿), 白礬 八兩(枯過).

반하 16냥(끓는 물에 씻어 미끄러운 것을 제거하고 생강즙에 하룻밤 담가둔다), 백반 8냥(말려서 수분을 제거한다).

右爲末，生薑自然汁爲丸，梧桐子大。每服三十丸至五十丸，食后臨卧，淡姜湯吞下。

위의 약재를 가루 내어 생강의 자연즙으로 오동나무 씨만 하게 환을 빚는다. 매번 30 - 50알 복용한다. 식후 잠자리에 들 때 담담한 생강탕으로 삼켜 넘긴다.

[ { 痘瘡 } ]

[ { 장학 } ]

• 【附子湯】

• 【부자탕】

治瘡瘡經久不瘥，止氣羸弱，身熱如火，極寒極熱，連日方醒，發時沈著枕簟，不能擡身，戰掉不堪，便溺、飲食俱不便。

장학(瘴瘡)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기운만 쇠약해져, 몸이 불처럼 뜨겁고 극도로 춥고 극도로 뜨거우며,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며, 발작할 때는 베개와 자리에서 몸을 들어 올릴 수 없고, 오한에 떨어 견딜 수 없으며, 대소변과 음식이 모두 불편한 것을 치료한다.

附子 二枚(一枚生去皮臍，一枚炮去皮臍，鹽水浸。各一兩)。

부자 2매(하나는 생것으로 껍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하나는 통째로 구운 후, 소금물에 담근다. 각 1냥)

右剉散, 每服三錢, 水一盞半, 生姜七片, 紅棗七枚, 煎至七分, 去滓攢冷, 就吞靈砂丹五十粒或百粒. 未效, 再以七棗湯吞黃芽丹二十粒, 仍服黑錫丹以墜痰, 亦可回元氣. 凡有此瘡, 但當守續真元, 沈虛熱爲法.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3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7편, 대추 7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힌 후, 영사단(靈砂丹) 50 - 100알을 함께 삼킨다. 효과가 없으면 다시 칠조탕(七棗湯)으로 황아단(黃芽丹) 20알을 삼키고, 계속해서 흑석단(黑錫丹)을 복용하여 담을 가라앉히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릇 이러한 학질이 있으면 다만 마땅히 진원(真元)을 지키고 허열을 가라앉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小柴胡湯】
- 【소시호탕】

治挾嵐嶂溪源蒸毒之氣, 自嶺以南, 地毒苦炎, 燥濕不常, 人多患此. 其狀血乘上焦, 痘欲來時, 令人迷困, 甚則發燥狂忘. 亦有啞不能言者. 皆由敗血瘀心, 毒涎聚於脾所致. 於此藥中加大黃、枳殼各五錢. [方見傷寒類.]

산속 계곡의 뜨겁고 축축한 증기의 독을 치료한다. 강남 지역은 땅의 독기가 매우 심하고, 우기와 건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병을 많이 앓는다. 증상은 혈이 상초를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병이 오려고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되고 곤란하게 하며, 심하면 광증을 나타나게 한다. 또한 병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는 자도 있다. 모두 부패한 혈이 심장에서 뭉쳐 고여 있고, 독한 연(涎)이 비장에 모여 있어 생긴다. 이 약에 대황과 지각을 각 5돈씩 더한다. [ 처방은 상한 부분에 나온다. ]

- 【地龍飲】

- 【지룡음】

治瘡瘍諸瘍，大熱煩燥。

장학(瘡瘍)과 여러 학질로, 심한 열이 나고 타듯 가슴이 마르는 것을 치료 한다.

生地龍三條(研細末).

생지룡 3마리(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右入生薑汁、薄荷汁、生蜜各少許，新汲水調下. 如熱熾，加腦子少許服，效。

위의 약에 생강즙、박하즙、생꿀을 각 조금씩 넣고, 새로 길은 물에 타서 복용한다. 만약 열이 지극히 심하면 용뇌 조금을 더하여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觀音圓】

- 【관음원】

取下暑毒、瘴氣毒。

더위의 독과 장기의 독을 제거한다.

圓白半夏(生)、烏梅肉、川巴豆(不去油)、母丁香。

둥근 흰 반하(생것)、오매육、천파두(기름을 제거하지 않는다)、모정향。

已上各十枚, 瞴, 右爲末, 姜汁麪糊丸如麻子大, 上下以厚紙蓋貼, 有油又再易紙. 每服五丸, 臨卧冷水下.

이상 각 10매씩을 볶에 말려 가루 내어 생강즙과 밀가루 풀로 삼 씨 만하게 환을 빚는다. 위아래를 두꺼운 종이로 덮어 꼭 싼다. 기름이 생기면 다시 종이를 바꾼다. 매번 5알을 복용한다. 잠자리에 들 때 찬물로 넘긴다.

[ {勞瘧} ]

[ {瘴瘧} ]

- 【芎歸鱉甲散】

- 【궁귀별갑산】

治表裏俱虛，眞元未復，疾雖暫止，小勞復來。

표리가 모두 허약하고 원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병이 비록 잠시 멈췄더라도 조금만 수고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當歸、川芎、白茯苓(去皮)、青皮(去白)、陳皮(去白)、半夏(湯洗七次)、鱉甲(去裙，醋炙黃)、芍藥 各二錢1.

당귀、천궁、백복령(껍질을 제거한다)、청피(흰 부분을 제거한다)、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반하(끓는 물에 일곱 번 씻는다)、별갑(가장자리를 제거하고 식초에 볶아 누렇게 만든다)、작약 각 2돈 반.

右剉散，每服三錢，薑五片，棗二枚，烏梅一箇，水煎。不以時服。熱多，加柴胡。寒多，加草果少許。

위의 약재를 썬다. 매번 3돈을 생강 5편, 대추 2개, 오매 1개와 함께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때를 가리지 않고 복용한다. 열이 많으면 시호를 더 한다. 한기가 많으면 초과를 조금 더한다.

[ { 瘧母 } ]

[ { 학모 } ]

- 【消癰圓】

- 【소벽원】

治彌年經吐汗下，榮衛虧損，邪氣伏藏脇間，結爲癰癧，腹脇堅痛。

여러 해 동안 토법、한법、하법을 사용하여 영위(榮衛)가 손상되고, 사  
기가 갈비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뭉쳐서 징벽(癰癧)이 되어 배와 옆구리  
가 단단하면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

茺花(炒), 朱砂(研, 各等分).

원화(볶는다)、주사(간다) 각 등분.

右爲末，煉蜜丸如小豆。每服十丸，濃煎棗湯下。去癰，須用茺花、大戟破  
水之劑，下後即與養胃湯。[方見傷寒陰証類。]

위의 약재를 가루 내어 달인 꿀에 팥알만 하게 환을 만든다. 매번 10알을  
대추를 진하게 달인 물로 복용한다. 적취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원화(茺  
花)와 대극(大戟)과 같은 수(水)를 분쇄하는 처방을 써야 하며, 설사시킨  
후에는 곧바로 양위탕(養胃湯)을 준다. [처방은 상한의 음증 부분에 나  
온다]

[ { 热瘡 } ]

[ { 열학 } ]

- 【八正散】

- 【팔정산】

治瘡發則心煩臉赤，聲叫，煩燥，極熱，欲冷地上臥，及冷漿，加牛黃、燈心、白竹青煎，卽效。[方見積熱類.]

학질이 발작하면 마음이 답답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타듯 마르면서 극도로 열이 나서 차가운 땅 위에 눕고자 하고, 차가운 미음을 찾는 상태를 치료한다. 우황·등심·백죽여를 더하여 달이면 즉시 효과가 있다. [처방은 적열 부분에 나온다.]

- 【白虎湯】

- 【백호탕】

治熱瘡，表裏俱熱，時時惡寒，大渴，口舌乾燥，加人參二錢。[方見傷寒通治類.]

열학으로 표리가 모두 뜨겁고 때때로 오한이 있으며 심하게 갈증이 나고 입과 혀가 건조한 것을 치료한다. 인삼 2돈을 가한다. [처방은 상한의 통치 부분에 나온다.]

[ { 虛瘡 } ]

[ { 허학 } ]

- 【分利順元散】

• 【분리순원산】

治虛怯人患瘡，未可進常山等藥者。

허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학질을 앓아, 아직 상산(常山) 등의 약을 투여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川烏 一兩，附子 一兩或二兩，南星 二兩，木香(別剉) 五錢(旋入)。

천오 1냥, 부자 1냥 또는 2냥, 남성 2냥, 목향(별도로 얇게 썬다) 5돈(별도로 넣는다).

右除木香不見火，三味各一半，去皮生用，即三生飲。一半炮熟，即順元散。合和切片，每服四錢，生姜十片，棗七枚，水一盞，煎至七分。當發前一日及當發之日，早晨連進二三服，以化去痰。諺云：無痰不成瘡。又半生半熟，乃能分解陰陽也。

위의 처방에서 목향을 제외하고 불에 달지 않게 하여, 세 가지 약재를 각 절반씩 껌질을 벗기고 생것으로 사용하면 곧 삼생음(三生飲)이다. 절반을 구어 익히면 곧 순원산(順元散)이다. 합쳐 섞어 얇게 썬 다음, 매번 4돈을 생강 10편, 대추 7개과 함께 넣고 물 1잔이 7할이 되도록 달인다. 발병하기 전날과 발병하는 날의 이른 아침에 연달아 2 - 3번 복용하여 담을 화해시켜 제거한다. 속담에 '담이 없으면 학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반은 생것이고 반은 익힌 것으로 쓰면 능히 음양을 분해할 수 있다.

- 【四將軍飲】

- 【사장군음】

治瘡作時仆厥，撼掖不醒，是中心抑鬱，陰陽交戰所致，先依灸法，

[見后.] 仍服此藥.

학질로 밤작이 일어나면서 쓰러져 기절하고 겨드랑이를 흔들어도 깨어 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마음속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음양이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먼저 뜸법에 따라 치료하고 [뒤에서 나온다] 이어 이 약을 복용한다.

附子一兩， 呵子四箇， 陳皮四箇(全者)， 甘草四寸.

부자 1냥, 가자 4개, 진피 4개(온전한 것), 감초 4촌.

右剉散，每服四錢，水二盞，生姜七片，棗七枚，煎至七分。初服或不納，

再進則漸能嚥，四服盡頓愈，更不復作。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4돈을 물 2잔에 생강 7편, 대추 7개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다. 처음 복용할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복용하면 점차 삼킬 수 있게 되고, 4번 복용하면 모두 완전히 낫게 되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 【七棗湯】

- 【칠조탕】

治五臟氣虛，陰陽相勝，作為痰瘡，不問寒熱先後，與夫獨作、疊、間日，悉主之。

오장의 기허로 음양이 서로 경쟁하여 학질이 되는 것을 치료한다. 앞서거나 뒤서기니 하는 한열왕래에 관계없이, 그리고 한열이 하나만 나오거나, 한열이 한꺼번에 오거나, 하루씩 돌아가면서 나타나더라도 관계없이 이 것으로 모두 치료한다.

附子一枚(炮裂，以鹽水浸，再炮，如此凡七次。至七次不浸，去皮臍。)

부자 1매(통째로 터질 때가 구어 소금물에 담근 다음 다시 통째로 굽는다. 이와 같이 모두 7번을 한다. 7번째가 되면 가라앉지 않는다. 껌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右剉散，水一椀，生姜七片，棗七枚，煎至八分。當發日，空心溫服，仍喫棗子四五枚。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물 한 사발에 생강 7 조각, 대추 7개를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인다. 발병하는 날에 도달하면 공복에 따뜻하게 복용하고, 이어 대추 4~5개를 씹어먹는다.

- 【理脾飲】

- 【이비음】

治脾臟不和，瘡疾，瀉利腹痛，下部無力，體重足痿，脚下痛，飲食中滿，四肢不舉。此方極驗。

비장이 조화롭지 못하여, 학질이 나고,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하체에 힘이 없고, 몸이 무겁고 발이 위축되고, 다리 아래가 아프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그득히 부풀고, 사지가 힘이 없어 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 처방은 극히 효험이 좋다.

橘皮(生用)、甘草(炙)、厚朴(去麌皮)一兩(姜汁炒)，羌活、防風、肉豆蔻、白茯苓各二錢半，川芎半兩，吳茱萸一錢(去梗)。

굴피(생것)、감초(굽는다)、후박(거친 껍질을 제거한다) 1냥(생강즙에 볶는다)，강활、방풍、육두구、백복령 각 2돈 반，천궁 반 냥，오수유 1돈(줄기를 제거한다)。

右剉散，每服二錢，水一盞，煎至八分，空心食前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2돈을 물 1잔에 8합이 되도록 달여 식전 공복에 복용한다.

- 【果附湯】

- 【과부탕】

治脾寒瘡疾不愈，振寒少熱，面青不食，或大便溏泄，小便反多。

비장이 차서 학질이 낫지 않아, 오한으로 몸을 떨며 열이 적으며, 얼굴이 푸르고 음식을 먹지 않고, 혹 대변이 묽게 설사하고 소변은 도리어 많이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草果仁、附子(炮，去皮臍)各等分。

초과인·부자(통째로 구어 껍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각 등분.

右剉散, 每服半兩, 水二盞, 姜七片, 棗一枚, 煎至七分, 溫服, 不拘時候.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반 양을 물 두 잔에 생강 7 조각, 대추 1개을 함께 넣고 7할로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 【黑錫丹】
- 【흑석단】

治冷痰作瘡. [ 方見痼冷類. ]

냉담(冷痰)이 학질을 일으키는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고냉 부분에 나온다. ]

- 【冷附湯】
- 【냉부탕】

治瘡疾，無過是痰實痞塞不通，脾胃弱虛，熱在上，停于胸膈，不得入于臟腑，所以五更冷服，乃使藥下達，壯脾胃，去痰實，除虛熱，降心氣。屢用屢效。

학질을 치료한다. 학질은 단지 담(痰)이 왕성하여 소통을 가로막아 비위(脾胃)가 허약지다 보니, 열이 위에 있으면서 가슴과 횡경막에 머물러 장부로 들어가지 못해 생기는 병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경에 차갑게 복용함으로써 약기운이 아래로 도달하도록 하여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실한 담(痰)을 제거하고, 허열을 없애고 심기(心氣)를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 번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효과가 있었다.

附子(重九文) 一兩(炮，去皮臍).

부자(큰 것) 1냥(통째로 구어서 껌질과 배꼽을 제거한다).

右切作片，分二服。水二大盞，生姜十片，煎至一盞，隔夜煎下，用薄綿覆盞面，露一宿，五更初冷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썰어 조각을 만들어 2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물 2대잔에 생강 10 조각을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인다. 달인 후 하룻밤이 두었다가 얇은 솜으로 잔 위를 덮고 하룻밤 이슬을 맞힌 후 새벽 오경 초에 차갑게 복용한다.

[ { 久瘡 } ]

[ { 구학 } ]

- 【丁香煮散】

- 【정향자산】

患瘡經年不安，黃瘦，飲食減少，雖有時歇三兩日，或勞力，或喫少毒

物相犯，寒熱立至，多服效。[ 見嘔吐類。]

학질을 앓은 지 일 년이 되어도 낫지 않아 누렇게 야위고 음식 섭취가 줄어들었다. 비록 때로는 사흘이나 이틀간 멎기도 하지만, 힘든 일을 하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어서 서로 상충하면 한열이 즉시 나타난다. 많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구토 부분에 나온다。]

- 【大已寒圓】

- 【대이한원】

治瘡久不愈，每發則極寒極熱，瘡退汗如雨，生薑、枳實煎湯服，一服不

作。[ 方見泄瀉類。]

학질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발작할 때마다 극도로 춥고 극도로 뜨거우며, 학질이 물러가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치료한다. 생강·지실을 달인탕에 복용한다. 한 번 복용으로 다시 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 처방은 설사 부분에 나온다。]

- 【橘皮煎圓】

- 【귤피전환】

治久瘡，扶虛理脾腎。[ 方見痼冷類.方虛損類<sup>2</sup> ]

오래된 학질을 치료한다. 허한 것을 북돋고 비장과 신장을 조리한다.

[ 처방은 고냉 부분에 나온다. 처방은 허손 부분에 나온다. ]

[ { 通治 } ]

[ { 통치 } ]

瘡疾陰陽交爭，寒熱互作，用藥須半生半熟，半冷半熱，乃收十全之功。

학질은 음양이 서로 다투어 한열이 교대로 나타나는 병이므로, 약을 쓸 때는 반은 생것, 반은 익힌 것, 그리고 반은 차가운 것, 반은 뜨거운 것을 써야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草果平胃散】

- 【초과평위산】

治脾虛作瘡，不問寒熱先后，飲食不進，宜服。

비허로 인한 학질을 치료한다. 한열의 선후나 음식의 가식·불가식을 따지지 않고 복용한다.

右以生料平胃散四兩，加入草果、大腹皮、檳榔、青皮各二兩，剉碎，相和勻。每服五錢，水一盞半，姜三片，棗二枚，煎七分，空心多服收效。

위의 처방은 생료평위산 4냥에 초과、대복피、빈랑、청피 각 2냥을 넣고 잘게 썰어서 고루 섞는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 대추 2개와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여서 공복에 많이 복용한다. 그러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人參養胃湯】

- 【인삼양위탕】

治寒多熱少，或但寒不熱，頭痛惡心，胸滿嘔，身體疼痛，慄慄振寒，面色青白，不進飲食，脈來弦數。每服生薑七片，棗二枚。多寒加炮附子。  
[ 方見傷寒陰證類。 ]

한기가 많고 열기가 적거나, 혹은 다만 춥기만 하고 열이 나지 않으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우며, 가슴이 그득하고 땀꾹질하며, 몸이 아프고 오싹오싹 추위에 떨고, 안색이 푸르스름하게 희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맥이 현삭(弦數)한 것을 치료한다. 매번 복용할 때 생강 7 조각, 대추 2개를 넣는다. 한기가 많으면 포부자를 더한다. [ 처방은 상한의 음증 부분에 나온다. ]

【小柴胡湯】與【養胃湯】合和，名【加減清脾湯】。寒多熱少，多用養胃湯；熱多寒少，多用柴胡湯；寒熱均則平用。生薑、桃柳枝、地骨皮、紅棗煎。多服取效。

소시호탕과 양위탕을 합하여 가감청비탕이라고 한다. 한이 많고 열이 적으면 양위탕을 많이 쓰고, 열이 많고 한이 적으면 소시호탕을 많이 쓰며, 한열이 균등하면 같은 분량을 쓴다. 생강、도류지、지골피、홍조를 같이 넣고 달인다. 많이 복용하여 효과를 얻는다.

- 【藿香正氣散】
- 【곽향정기산】

治瘡，徧身腫滿，加草果、縮砂一兩。[方見傷寒陰證類。]

학질로 온몸이 붓고 그득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치료한다. 초과、축사 각 1냥을 더한다。[처방은 상한의 음증 부분에 나온다。]

【小柴胡湯】與【五苓散】合和，名柴苓湯。治傷風、傷暑、瘡大效。每服薑三片，麥門冬二十粒去心，地骨皮少許煎，溫服。[方見傷寒熱證類。五苓散方傷暑類。]

소시호탕과 오령산을 합하여 시령탕이라 이름한다. 상풍、상서、학질에 큰 효과가 있다. 매번 생강 3편, 맥문동 20알(심을 제거한다), 지골피 조금 을 넣고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처방은 열증 부분에 나온다。오령산 처방은 상서 부분에 나온다。]

- 【柴胡桂薑湯】

- 【시호계강탕】

治瘡，或有寒者，但寒不熱者。亦治久不愈者。

학질 중에 혹은 오한기가 있는 것이나, 다만 춤기만 하고 열이 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것도 치료한다.

北柴胡 四錢，桂心 一錢半，黃芩 一錢半，括摶根 二錢，牡蠣(杵碎，炒)、甘草、乾薑 各一分。

북시호 4돈, 계심 1돈 반, 황금 1돈 반, 팔루근 2돈, 모려(절구로 부수어 볶는다)、감초、건강 각 1푼.

右剉散, 每服五錢，水一盞半，煎八分溫服。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넣고 달여서 8할이 되면 따뜻하게 하여 복용한다.

- 【加味二陳湯】

- 【가미이진탕】

每服四錢，薑五大片，加旋覆花四錢煎。日四服，不拘時候。久瘡有效。虛弱人，稊附湯兼服。[方見前。]

매번 4돈을 생강 5대편과 선복화 4돈과 함께 넣고 달인다. 하루에 4번 복용하며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오래된 학질에 효과가 있다. 허약한 사람은 과부탕(菓附湯)을 함께 복용한다. [ 처방은 앞에서 나온다. ]

[ { 截瘡 } ]

[ { 절학 } ]

- 【勝金圓】
- 【승금원】

治一切瘡病，發作有時。蓋因外邪客於臟腑，生冷之物內傷脾胃。或先寒後熱，先熱后寒，或寒多熱少，或寒少熱多，或但熱不寒，或但寒不熱。或連日不發，或間日而發，或發後三五日再發。寒則肢體顫掉，熱則舉身如火，頭痛惡心，煩渴引飲，氣喘急，口苦咽乾，背膂痠疼，腸鳴腹痛。或痰聚胸中，煩滿欲嘔。并皆治之。

모든 학질을 치료하는데, 발작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대개 외사가 장부에 침입하고 생냉한 음식이 안으로 비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혹은 먼저 춥고 나중에 뜨겁거나, 먼저 뜨겁고 나중에 춥거나, 혹은 추위가 많고 열이 적거나, 혹은 추위가 적고 열이 많거나, 혹은 단지 뜨겁기만 하고 춥지 않거나, 혹은 단지 춥기만 하고 뜨겁지 않다. 혹은 몇일 발작하지 않거나, 혹은 하루 걸려 발작하거나, 혹은 발작한 후 3~5일 만에 다시 발작한다. 추우면 사지가 부들부들 떨고, 뜨거우면 온몸이 불과 같으며, 두

통과 오심이 있고, 타듯 갈증아 나서 물을 찾으며, 숨이 매우 차 헐떡거리고,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며, 등과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프며, 장명과 복통이 있다. 혹은 담이 가슴 속에 모여서 답답하여 구토하려 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

檳榔 四兩 , 常山(酒浸煎焙) 一斤.

빈랑 4냥, 상산(술에 담갔다가 달여서 불에 찌인다) 1근.

右爲末 , 水麪糊爲丸梧桐子大. 每服三十丸 , 於發前一日晚臨卧 , 用冷酒吞下便睡 , 不得喫熱物茶湯之類. 至四更盡 , 再用冷酒吞十五丸. 忌食一切熱羹湯粥食 , 午間可食溫粥 , 至晚方可食熱. 忌一切生冷魚腥等物.

위의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밀가루를 개어 만든 풀로 오동나무 씨 만한 크기의 환을 만든다. 매번 30알을 복용하되, 발병하기 전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찬 술로 삼키고 곧바로 잠을 잔다. 뜨거운 음식이나 차나 탕류 같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사경(四更)이 끝날 때, 즉 3시 전후에 당시 찬 술로 15알을 삼킨다. 모든 뜨거운 국물이나 탕, 죽 등의 음식을 금하고, 한낮에는 따뜻한 죽은 먹을 수 있다. 저녁이 되어야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모든 생것이나 찬 것, 비린내 나는 것 등은 금한다.

- 【又方】

- 【또 다른 처방】

川恒山二兩爲末 , 鷄卵二箇 , 取漬爲圓. [ 治證服餌 , 一如上法. ]

천항산, 즉 천상산(川常山) 2냥을 가루 내어, 계란 2개의 흰자를 취하여 환을 만든다. [ 치증과 복용법은 모두 위의 방법과 같이 한다. ]

- 【露星飲】

- 【노성음】

常山一味細剉，每用五錢，半酒半水煎，去滓，於當空以薄綿封蓋椀，  
露至天微明時，取盪溫服。些小嘔泄無妨。

상산 한 가지 약재를 잘게 썰어서, 매번 5돈을 술과 물을 반반씩 넣고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야외에서 얇은 솜으로 사발을 덮어 봉하여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질 때까지 이슬에 노출시킨 다음, 가져다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약간 구토하거나 설사하는 것은 괜찮다.

- 【辰砂圓】

- 【진사원】

治瘡之爲苦，異於諸疾。世人治之，不過用常山、砒霜之類，發吐取涎而已，雖安，所損和氣多矣。有人病瘡半年，前人方術，用之略盡，皆不能效，遂服此藥愈。

학질을 치료하는 것의 어려움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치료할 때에 상산이나 비상과 같은 약재로 토하게 하여 연(涎)을 뽑아내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비록 편안해지긴 하지만 기를 손상하는 경우

가 많다. 어떤 사람이 학질을 앓은 지 반년이 되었는데 이전 사람들의 처방과 술법을 거의 다 써보았으나 모두 효과를 낼 수 없었는데, 마침내 이 약을 복용하고 나았다.

辰砂(有牆壁光明者)、阿魏(眞者) 各一兩.

진사(색이 빛처럼 밝은 것)、아위(진품) 각 1냥.

右研勻，和稀米糊丸如皂角子大。空心，濃煎人參湯下一圓。瘡之爲病，雖在忌醫之列，但體認得所因眞的，按方用藥，無不切效。[一方，用白茯苓、甘草各三錢，分三服，水一盞煎，臨發時頓服，有效。]

위의 약재를 고르게 갈아서 묽은 쌀풀과 함께 반죽하여 조각자 크기로 환을 만든다. 공복에 진하게 달인 인삼탕으로 1알을 복용한다. 학질이라는 병은 비록 의사도 꺼리는 병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방에 따라 약을 쓰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다. [어떤 처방에는 백복령·감초 각 3돈을 사용하여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물 한 잔이 되도록 달인다. 발작을 막 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 【又方】
- 【또 다른 처방】

生薑四兩，連皮搗爛，止用自然汁。約明日當發，隔夜安排，將紗片遮蓋，露一宿，五更初攢動澄者，一上呑喫。或有痰吐，任之卽安。或微利亦安。

생강 4냥을 껍질까지 찧어 으깨어 자연즙만을 사용한다. 대략 다음날 발병할 것으로 예상되면 전날 밤에 준비하여 거즈로 덮고 하룻밤 노출시킨 후, 오경 초, 즉 새벽 3시경에서 맑은 것을 한 번에 삼켜 먹는다. 혹시 가래를 토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곧 안정된다. 혹은 약간 설사를 하더라도 안정된다.

- 【灸法】

- 【뜸법】

大椎，在第一椎下陷中宛宛中，灸三七壯至四十九壯止。或灸第三骨節亦可。

대추는 제1추골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의 우묵한 가운데에 있다. 뜸을 21 - 49장까지 뜯다. 혹은 세번째 관절에 뜸을 떠도 된다.

大陵穴，在掌後兩骨間，灸三壯，立效。

대릉혈은 손바닥 뒤 두 뼈 사이에 있다. 뜸을 3장 뜨면 즉시 효과가 있다.

噫嚙二穴，在肩膊內廉第六椎兩傍三寸，其穴抱肘取之，灸二七壯至一百壯止。

의희 2혈은 어깨뼈 안쪽 가장자리 제6추골 양쪽 3촌에 있다. 그 혈을 취할 때는 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은 자세로 취하며, 뜸을 14 - 100장까지 뜯다.

凡灸瘡，必先問其病所發之處，先尋穴灸之亦可。

무릇 학질에 뜸을 뜰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병이 발생한 부위를 물어보고,  
먼저 혈자리를 찾아 뜸을 뜨는 것도 좋다.

• 【針法】:

• 【침법】:

於十指近甲梢針出血，及看兩舌下，[有紫腫紅筋，亦須針去血，效。]

열 손가락의 손톱 끝 근처에 침을 놓아 피를 내고, 또한 양쪽 혀 밑을 살펴  
보아서 [ 자주색으로 부어오른 붉은 핏줄이 있으면 역시 침을 놓아 피를  
빼낸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

1. ① : 半 ※《四庫全書》[←](#)

2. 方虛損類 : 후세 가필 [←](#)

○ 痰厥

○ 담궐

- 【順元散】

- 【순원산】

治暴思痰厥，氣虛，身微冷，面淡白，昏悶不知人事。[方見風科虛證類.]

갑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로 담궐이 생겨 기가 허해져, 몸이 약간 차  
며, 얼굴이 허였고, 정신이 혼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  
다. [처방은 풍과의 허증 부분에 나온다.]

- 【星香飲】

- 【성향음】

治暴患痰厥，氣盛，身熱面赤。[方見中風熱証類.]

갑자기 생긴 담궐로 기가 성해져 몸에 열이 나며 얼굴이 붉은 것을 치료  
한다. [처방은 중풍의 열증 부분에 나온다.]

- 【單方】

- 【단방】

治暴患痰厥，不省人事。

갑작스럽게 담궐이 발생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를 치료한다.

右用生清油一盞，灌入喉中，須臾逐出風痰，立愈。

생청유 한 잔을 목구멍 속에 부어 넣으면 잠시 후 풍담이 배출되면 즉시 낫는다.

## ○眩冒

### ○현모

- 【白薇湯】

- 【백미탕】

治平居無苦疾，忽如死人，身不動搖，默默不知人，目閉不能開，口噤不能言。或微知人，惡聞人聲，但如眩冒，移時方寤。此由已汗過多，血少氣併於血，陽獨上而不下，氣壅塞而不行，故身如死。氣過血還，陰陽復通，故移時方寤，名曰鬱冒，亦名血厥。婦人多有之。

평소 생활에서 괴로운 질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뜰 수 없고 입을 악물어 말을 하지 못하고, 혹은 사람을 미약하게 알아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소리 듣기를 싫어하고, 다만 눈앞이 껌껌하고 어지러워하다가, 잠시 후에 깨어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는 이미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혈이 적어지고 기가 혈에 합쳐져서 양기만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되어, 기가 막혀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보인다. 기가 지나가고 혈이 돌아와서 음양이 다시 통하므로 잠시 후에 깨어나는 것이니, 울모(鬱冒)라고도 하고 혈궐(血厥)이라고도 한다. 성인 여자에게 많다.

白薇、當歸 各一兩，人參(去蘆) 半兩，甘草 一分.

백미、당귀 각 1냥, 인삼(노두를 제거한다) 반 냥, 감초 1푼.

右剉, 每服五大錢, 水二盞, 煎至一盞, 去渣溫服, 不拘時.

위의 약재를 잘게 썬다. 매번 5대돈을 물 2잔에 넣고 1잔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수시로 복용한다.

- 【倉公散】

- 【창공산】

瓜蒂、藜蘆、礬石(煅)、雄黃 各等分.

과체、여로、반석(불에 달군다)、옹황 각 등분.

右爲細末, 少許吹入鼻中, 得嚏爲度. 此藥能起死人.

위의 약재를 곱게 가루 내어 조금씩 코 안에 불어넣되 재채기가 나올 때 까지 한다. 이 약은 능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卒厥尸厥

### ◦졸궐과 시궐

- 【追魂湯】

- 【추혼탕】

治卒厥暴死，及主客忤、鬼擊、飛尸，奄忽絕氣不覺，口噤。

갑작스러운 궐증으로 급사할 것 같은 상태와, 객오(客忤)、귀격(鬼擊)、  
비시(飛尸)로 갑자기 기가 끊어져 의식을 잃고 입을 악무는 것을 치료한  
다.

麻黃(去節) 三兩, 杏仁(去皮尖) 二百五十箇, 甘草(炙) 一兩.

마황(마디를 제거한다) 3냥, 행인(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250개,  
감초(굽는다) 1냥.

右爲剉散, 每服四錢, 水一 半, 煎七分, 去渣灌之. 通治諸感忤, 或口噤:  
口不開, 去齒下湯, 湯入口, 活. 不下, 分病人髮左右, 捉搦肩引之, 藥  
下漸甦, 令服盡取效.《千金》有桂心二兩.《金匱》云：寸脉沈大而滑，沈則爲  
實，滑則爲氣，實氣相搏，血氣入臟則死，入胃則愈. 若卒厥，唇口青，  
身冷，爲入臟即死，身和，汗出則愈.

위의 것을 얇게 썰어, 매번 4돈을 물 1되 반에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입에 흘려 넣는다. 모든 감오(感忤)를 두루 치료하는데, 혹은 입이 다물어 열리지 않을 때는 이를 벌리고 탕액을 넣으면 입에 들어가면서 깨어난다. 탕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의 머리카락을 좌우로 나누어 잡고 어깨를 잡아당기면 탕액이 내려가면서 점차 깨어나고, 환자에게 모두 마시게 하면 효과가 있다. 《천금방》에는 계심 2냥이 들어 있다. 《금궤요략》에서 말하였다: 촌맥이 침대(沈大)하면서 활(滑)하다. 침(沈)한 것은 실(實)이고 활(滑)한 것은 기(氣)가 되니, 실(實)과 기(氣)가 서로 들어붙어 싸우다가 혈기가 장(臟)에 들어가면 죽고, 위(胃)에 들어 가면 낫는다. 만약 갑자기 궤역이 일어나 입술과 입이 푸르고 몸이 차가 우면 장(臟)에 들어간 것이므로 곧 죽는다. 몸이 편안하고 땀이 나면 낫는다.

- 【內鼻散】

- 【내비산】

治尸厥，脉動而無氣，氣閉不通，靜而若死，名卒厥。

시궐(尸厥)를 치료한다. 맥박은 뛰지만 기운이 없고 기가 막혀 통하지 않으며, 조용하여 죽은 것 같아 졸궐이라 이름하였다.

菖蒲 (去毛).

창포 (털을 제거한다).

爲末，每用二字，內兩鼻中，吹之令入。仍以桂末安於舌下。

가루 내어 매번 2돈을 양쪽 콧구멍 안에 넣고 불어서 들어가게 한다. 이어 계피 가루를 혀 아래에 놓는다.

- 【硫黃散】

- 【유황산】

治尸厥，奄然死去，四肢逆冷，不省人事，腹中氣走如雷鳴。

시궐을 치료한다. 갑자기 죽은 것처럼 되어 사지가 차가워지고 인사불성 이 되며, 배 속에서 기가 돌아다니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낸다.

焰消 半兩，硫黃 一兩。

염초 반 냥, 유황 1냥.

右二件，細研如粉，分作三服。每服用好酒一大煎，覺焰起，傾於盞內，蓋，候溫，灌與服，如人行五里，又進一服，不過三服卽甦。

위의 2 가지 약재를 곱게 갈아서 가루 내어 3번 복용할 분량으로 나눈다. 매번 좋은 술 1대잔 분량을 옥으로 만든 잔에 넣고 달여 불꽃이 일면 잔 안에 약 가루를 부어 넣고 뚜껑을 덮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흘려 넣어주어 복용시킨다. 사람이 5리 정도 걸을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복용 시킨다. 3번 복용 이내에 깨어난다.

- 【又方】

- 【또 다른 처방】

附子七錢，炮熟去皮臍爲散，分作二服。每服用酒三盞，煎至一盞溫服。

부자 7돈을 통째로 구어 익힌 후 껌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2회 복용분으로 나눈다. 매번 술 3잔을 사용하여 1잔이 될 때까지 달인 후 따뜻하게 복용한다.

- 【又方】

- 【또 다른 처방】

生薑自然汁半盞，酒一盞，煎令百沸，灌二服，却用灸。

생강 자연즙 반 잔과 술 한 잔을 달여서 백 번 끓을 오를 정도로 달여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뜸을 사용한다.

- 【灸法】:

- 【침/뜸법】:

頭上百會穴四十九壯，兼臍下氣海、丹田穴三百壯。覺身體溫緩即止。

머리 위의 백회혈에 49장, 아울러 배꼽 아래의 기해·단전혈에 300장을 뜯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 곧 멈춘다.

○沙證

○사증

- 艾湯
- 애탕

試沙證. 江南舊無，今所在有之。原其證古方不載，所感如傷寒，頭痛嘔惡，渾身壯熱，手足指末微厥，或腹痛悶亂，須臾能殺人。先濃煎艾湯試之，如吐卽是。

사증을 시험하는 방법이다. 강남 지역에는 예전에 없던 병인데, 지금은 곳곳에 있다. 그 병증을 고찰해 보면 고방에는 기재되지 않고, 감촉되는 것이 상한과 같아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며 오심이 있고, 온몸에 심한 열이 나며, 손발 끝이 약간 차가워지고, 혹은 배가 아프고 답답하여 어지러우며, 잠시 후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먼저 쑥을 진하게 달인 약탕으로 시험해보는데, 만약 토하면 바로 이것이다.

右用五月蚕退紙碎剪，安椀中，以碟蓋之。以百沸湯泡艾椀許，仍以別紙封裹縫良久，乘熱飲之，就臥以厚被蓋之，汗出愈。

위의 방법은 5월 잠퇴지(蚕退紙)를 잘게 짤라 사발에 넣고 접시로 덮는다. 쑥을 끓는 물에 넣어 우린 다음 별도의 종이로 덮어 봉한 다음 상당 시간 그대로 둔다. 따듯할 때 복용하고 바로 누워 이불을 덮어 땀이 나면 낫는다.

又近時多看頭額上及胸前兩邊有小紅點，在於皮膚者，却用紙燃成條或大燈草，微蘸香油，於香油燈上點燒，於紅點上焌爆者是。又名水傷寒。却用樟木煎湯服，或葱豉湯汗出愈。如腹痛不止，又用針於兩手十指近甲梢針出血，即愈。

또한 근래에는 이마 위와 가슴 앞 양쪽의 피부에 작은 붉은 점이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잠퇴지를 손끝으로 비벼서 작은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큰 등심초를 사용하여 참기름을 살짝 묻혀서 참기름 등불에 가까이하여 불을 붙혀 붉은 점을 지진다. 또한 수상한(水傷寒)이라고도 한다. 장목(樟木)을 달인 탕액을 복용하거나 총시탕으로 땀을 내면 낫게 한다. 만약 복통이 멈추지 않으면 다시 침으로 양손 열 손가락의 손톱 끝 근처를 찔러 피를 내면 곧 낫는다.

- 【鹽湯吐法】:
- 염탕토법

治心腹絞痛，冷汗出，脹悶欲絕，俗謂攬腸沙。今攷之，此證乃名乾霍亂。  
此亦由山嵐瘴氣，或因飢飽失時，陰陽暴亂而致。急用鹽湯吐法，此法救人不一。

명치와 배가 쥐어짜듯 아프면서 식은땀이 나고, 배가 부풀어 올라 답답하여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속칭 교장사(攬腸沙)라고 한다. 지금 살펴보니 이 증상은 바로 이름하여 건꽉란이다. 이것 또한 산람장기로 인하거나 혹은 배고픔과 배부름이 때를 잃어서 음양이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생긴다. 급히 염탕토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한 것이 여러 번이다.

右用鹽半許，以熱湯數椀泡鹽，令患人盡服，連致數椀，不得住手方可。  
却以鷄羽掃咽喉間，卽時吐，所喫鹽湯盡出，其證卽愈。

위의 방법은 소금 반 되 정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 몇 사발 분량으로 소금을 녹여 우려 환자로 하여금 모두 복용하게 하되, 연달아 몇 사발을 마시게 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 닭 깃털로 목구멍 사이를 쓸어 자극하면 즉시 토하게 되어 먹었던 소금물이 모두 나오고, 그 증상이 곧 낫는다.

- 【又法】:
- 【또 다른 방법】:

治沙證，但用苧麻蘸水，於頸項、兩肘臂、兩膝腕等處戛掠，見得血凝皮膚中，紅點如粟粒狀，然後蓋覆衣被，喫少粥湯，或葱豉湯，或清油、生葱、茶，得汗即愈。此皆使皮膚腠理開發鬆利，誠不藥之良法也。

사증을 치료할 때는 다만 모시삼을 물에 적셔서 목덜미·양쪽 팔꿈치·양쪽 무릎과 손목 등의 부위를 긁어 피를 내어 혈이 응고되면 좁쌀 같은 붉은 점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한다. 이후에 옷과 이불로 덮어주고 묽은 죽이나 총시탕 또는 맑은 기름이나 생파, 차를 조금 먹여서 땀을 내면 곧 낫는다. 이는 모두 피부의 주리를 열어서 소통되게 하는 것으로 진실로 약을 쓰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 【又法】:

- 【또 다른 방법】:

兩足墜痛，亦名水沙。[可於兩腳曲腕內兩筋兩骨間刺出血，愈。名委中穴。]

추락하여 다친 것처럼 양쪽 발이 아프면, 또한 수사(水沙)라고도 한다。  
[양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 두 힘줄과 두 뼈 사이를 찔러 피를 내면 낫는다. 위중혈이라고 한다.]

## ○時疫

### ○시역

- 【十神湯】

- 【십신탕】

治時令不正，瘟疫妄行，感冒發熱，或欲出疹。此藥不問陰陽兩感風寒，

并宜服之。

절기와 날씨가 맞지 않아 온역이 함부로 유행하고, 감모로 발열하거나 혹은 발진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이 약은 음양이냐, 양감풍한이냐를 따지지 않고 복용해도 된다.

川芎、甘草(炙)、麻黃(去根)、乾葛、升麻(去蘆)、赤芍藥、白芷、陳皮、香附子(炒，去毛)、紫蘇 各四兩。

천궁、감초(볶는다)、마황(뿌리를 제거한다)、건갈、승마(노두를 제거한다)、적작약, 백지、진피、향부자(볶아서 털을 제거한다)、자소 각 4냥。

右剉散，每服三錢，水一盞半，姜五片，煎七分，去渣熱服，不以時候。如發熱頭痛，加連須葱白。中滿氣實，加枳殼煎。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3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5편과 함께 넣고 7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복용한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만약 발열과 두통이 있으면 뿌리가 달린 총백을 더한다. 배 가 그득히 불러 오르고 기가 실(實)하면 지각을 더하여 달인다.

- 【不換金正氣散】
- 【불환금정기산】

治四時傷寒，瘴疫時氣，頭痛壯熱，腰背拘急，五勞七傷，山嵐瘴氣，寒熱往來，五膈氣噎，咳嗽痰涎，行步喘乏，或霍亂吐瀉，臟腑虛寒，下痢赤白，并宜服之。

사계절의 상한, 장역시기, 두통과 장열, 요배구급, 오로칠상, 산람장기, 한열왕래, 오격기액, 해수담연, 행보천핍, 혹은 꽈란토사, 장부허한, 하리적 백을 치료하니, 모두 마땅히 복용해야 한다.

厚朴(去皮, 姜汁炒)、藿香、甘草、半夏、蒼朮(米泔浸)、陳皮 各等分。

후박(껍질을 벗기고 생강즙에 볶는다)、곽향、감초、반하、창출(쌀뜨물에 담근다)、진피 각 등분。

右剉散, 每服三錢, 水一 半, 生姜三片, 棗二枚, 煎八分, 去渣, 食前熱服. 忌生冷油煎毒物. 不伏水土宜服之. 常服進飲食, 調脾胃. 一方, 加白茯苓.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물 1되 반에 생강 3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식전에 약간 뜨겁게 복용한다. 생것·찬 것·기름에 튀긴 것·독이 있는 음식을 금한다. 물과 토질에 적응하지 못할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복용하면 음식 섭취를 돋고 비위를 조절한다. 한 처방에서는 백복령을 더한다.

- 【桂枝黃芩湯】

- 【계지황금탕】

治風疫, 脈浮數而不弱, 頭項疼, 腰脊痛, 發熱惡風, 遷相傳染.

풍역으로 맥이 부삭(浮數)하면서 약하진 않고, 머리와 목덜미가 아프며, 허리와 등뼈가 아프고, 발열하며 바람을 싫어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전염되는 것을 치료한다.

桂枝、赤芍藥、黃芩(去枯心) 各半兩, 甘草(炙) 一兩.

계지·적작약·황금(마른 심을 제거한다) 각 반 냥, 감초(굽는다) 1냥.

右剉散, 每服五錢, 水一盞半, 生薑三片, 棗二枚, 煎至八分, 去滓, 空心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5돈을 물 1잔 반에 생강 3편, 대추 2개과 함께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복에 복용한다.

- 【敗毒散】

- 【패독산】

治冬合寒反煖, 春發溫疫. [ 方見傷寒陽證類. ]

겨울에는 당연히 추워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하여 봄에 온역이 발생한 것  
을 치료한다. [ 처방은 상한의 양증 부분에 나온다. ]

- 【大柴胡湯】

- 【대시호탕】

治春合暖反涼, 夏發燥疫. [ 方同見上. ]

봄에는 따듯해야 한데 도리어 서늘하여 여름에 조역(燥疫)이 발생한 것  
을 치료한다. [ 처방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

- 【五苓散】

- 【오령산】

治秋合涼反淫雨, 冬發濕疫. [ 方見傷暑類. ]

가을에는 서늘해야 하는데 도리어 음침하게 비가 내려 겨울에 습역(濕  
疫)이 발생한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상서 부분에 나온다. ]

- 【五積散】

- 【오적산】

治夏合熱反寒, 秋發寒疫. [ 方見傷寒陰證類. ]

여름에는 더워야 하는데 도리어 추워 가을에 한역(寒疫)이 발생한 것을 치료한다. [ 처방은 상한의 음증 부분에 나온다. ]

- 【柴胡石膏散】

- 【시호석고산】

治時行瘟疫，壯熱惡風，頭痛體疼，鼻塞，咽喉乾燥，心胸滿，寒熱往來，痰實欬嗽，涕唾稠粘。

온역이 유행하여 심한 열이 나고 바람을 싫어하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코가 막히고 인후가 건조하며, 가슴이 그득하고 한열이 왕래하며, 담이 가득 차고 기침하며 콧물과 침이 끈끈한 것을 치료한다.

赤芍若 五兩，桑白皮 三兩七錢半，石膏(煅)、柴胡(去蘆)、前胡(去蘆)、乾葛 各五兩，升麻 二兩五錢，黃芩(去枯心) 三兩七錢，荊芥穗(去土) 三兩五錢。

적작약 5냥, 상백피 3냥 7돈 반, 석고(불에 달군다)·시호(노두를 제거한다)·전호(노두를 제거한다)·건갈 각 5냥, 승마 2냥 5돈, 황금(마른 심을 제거한다) 3냥 7돈, 형개수(흙을 제거한다) 3냥 5돈.

右剉散, 每服三錢，水二盞半，生薑三片，淡豉十餘粒，煎七分，去渣熱服。小兒作三服。

위의 약재를 얇게 썬다. 매번 3돈을 물 2잔 반에 생강 3조각, 담시 10여 알과 함께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인 후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복용한다. 소아는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 【蘇合香圓】

- 【소합향원】

凡入瘟疫家，先令開啓門戶，以大鍋盛水二斗於堂中心，用二十圓煎，其香能散疫氣。凡病者各飲一甌後，醫者却入診視，不致相染。

무릇 온역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먼저 문과 창을 열게 하고, 큰 솥에 물 두 말을 담아 집의 중앙에 놓은 다음 20알을 넣고 달인다. 그 향기가 능히 역기를 흡뜨린다. 무릇 병자들이 각 한 사발씩 마신 후에 의사가 비로소 들어가 진찰하면 서로 전염되지 않는다.

- 【又方】

- 【또 다른 처방】

入疫家不相染。

역병이 든 집에 들어가도 서로 전염되지 않는다.

雄黃研細水調，以筆濃蘸，塗鼻竅中，與病人同床，亦不相染。初洗面後及臨臥時點之。凡瘟家自生惡氣，聞之卽上泥丸，散入百脉，轉相傳染。若倉卒無藥，以香油抹鼻端，及以紙撲探鼻，嚏之爲佳。

웅황을 곱게 갈아 물에 개어 봉으로 진하게 찍어 콧구멍 속에 발라주면, 병자와 같은 침상에 있어도 서로 전염되지 않는다. 처음 세수한 후와 잠자리에 들 때 발라준다. 무릇 온병 환자 집에서는 저절로 악기가 생기는 데, 이를 맡으면 곤 니환(泥丸)으로 올라가 모든 혈맥으로 흘러져 들어가서 서로 전해져 전염된다. 만약 갑작스러운 상황에 약이 없으면 향유를 코끝에 바르고, 또한 종이를 비벼서 코를 후벼 재채기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

### 【傷寒遺事】

### 【상한유사】

- ○戰汗四證 :
- ○전한의 네 가지 증상:

厥陰逆至第七日，脉得微緩微浮，爲有脾胃脉也。故知脾氣全，不再受剋，邪無所容，否極泰來，榮衛將復，水升火降，則寒熱作而大汗解矣。

궐음이 역(逆)한 것이 제7일이 되어가는데 맥이 약간 완(緩)하고 약간 부(浮)하게 되면, 이는 비위맥(脾胃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기(脾氣)가 온전하여 다시 손상을 받지 않아 사기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막힘이 극에 달하면 트임이 온다'는 사자성어가 말하는 상황과 같다. 영위가 장차 회복되고, 수(水)가 올라가고 화(火)가 내려가면 한열이 일어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낫는다.

【黑奴圓】證，服藥一圓，但與冷水盡足飲之，須臾當寒，寒竟汗出便瘥。

[方通治門見之]

흑노원을 쓰는 병증이 있으면 약 한 알 복용하고 찬물을 배불리 마신다.

잠시 후에 추위를 느끼게 되고 추위가 끝나면 땀이 나면서 곧 낫는다.

[처방은 통치문에 나온다.]

【小柴胡證】具，而以他藥下之，柴胡證仍在者，復與柴胡湯。此雖已下之，不爲逆，得湯必蒸蒸而振，發汗出而解。

소시호탕증이 갖추어져 있는데 다른 약으로 설사시켰더라도, 시호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다시 시호탕을 준다. 이는 비록 이미 설사시켰더라도 역치가 아니니, 소시호탕을 얻으면 반드시 몸이 찌뿌둥하면서 떨리고 땀이 나면서 풀린다.

調胃承氣湯證云：太陽病未解，脉陰陽俱停，必先振慄，汗出而解。

조위승기탕증에서 말하였다: 태양병이 낫지 않아서 맥의 음양이 모두 느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떨면서 오한이 나고 땀이 나면서 낫는다.

- ○急下兩證：
- ○급히 설사시켜야 하는 증상:

少陰主腎，繫舌本。傷寒熱氣入於臟，流於少陰之經，腎汁乾，咽路焦，故口燥咽乾而渴，宜急下之。非若陽明證宜下而可緩也。雖然陽明宜緩，而有一證，發熱汗出多者，亦急下之。蓋陽明屬胃，汗多則胃汁乾，亦須及下也。少陰證，口燥咽乾，謂之腎汁乾，宜急下之。陽明證，發熱汗多，謂之胃汁乾，亦急下之。

소음은 신을 주관하며, 설본에 연결되어 있다. 상한의 열기가 장부에 들어가서 소음의 경맥에 흘러가면, 신즙이 마르고 인후가 타 들어가므로,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하며 갈증이 난다. 마땅히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양명증이 있으면 하법을 쓰되 천천히 시행해도 되는 상황과는 다르다. 비록 양명에는 마땅히 천천히 해야 하지만, 열이 나오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대개 양명은 위에 속고, 땀이 많으면 위즙이 마르므로, 역시 모름지기 때맞춰 하법을 써야 한다. 소음증이 있는데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한 것을 '신즙이 마른다'고 하니, 마땅히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양명증이 있는데 열이 나오 땀이 많은 것을 '위즙이 마른다'고 하니, 역시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 ○傷寒傷風誤下成痞：
- ○상한이나 상풍에서 잘못 하법을 써서 비증이 된 경우:

傷寒傷風，醫反下之，其人下利，日數十行，穀不化，腹中雷鳴，心下痞鞭而滿，幹嘔，心煩不得安。醫見心下痞，謂病不盡，復下之，其痞益甚。此非結熱，但以胃中虛，客氣上逆，故使鞭也。甘草瀉心湯主之。[屬太

陽 ]

상한이나 상풍에 의사가 잘못하여 하법을 쓰니, 그 사람이 변이 계속 나와 하루에 수십 번 설사하고 곡식이 소화되지 않고, 배 속에서 천등 같은 소리가 나오고 명치 아래가 굳고 답답하면서 그득하며, 헛구역질이 나오고 마음이 불안하여 편안하지 못하다. 의사가 명치 아래의 비(痞)를 보고 병이 다 낫지 않았다고 여겨 다시 하법을 쓰니, 그 비(痞)가 더욱 심해진다. 이 것은 열이 뭉쳐 있는 것(結熱)이 아니라 다만 위중이 허하여 객기(客氣)가 위로 치받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된 것이다.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이 치료한다. [ 태양에 속한다. ]

- ○三陰可汗 :
- ○삼음에서 땀을 낼 수 있는 경우:

陰病不當發汗 , 發汗卽動經. 然太陰脉浮 , 少陰病發熱 , 亦須微微出汗 ,  
但不可正汗耳. 大陰脉浮者 , 宜桂枝湯. 少陰發熱脉沈 , 宜麻黃細辛附子湯.  
少陰二三日 , 常見少陰證 , 無陽證者 , 宜麻黃甘草附子湯 , 微發汗. 皆陰  
證表藥也.

음병은 마땅히 발한시켜서는 안 되는데, 발한시키면 곧 경맥을 동요시킨다. 그러나 태음병에 맥이 부(浮)하거나 소음병인데 발열이 있으면, 또한 모름지기 미미하게 땀을 내야 한다. 다만 온전히 발한을 해서는 안 된다. 태음병에 맥이 부하면 계지탕이 적합하다. 소음병에서 발열하고 맥이 침

한 자는 마황세신부자탕(麻黃細辛附子湯)이 적합하다. 소음병이 된 지 2 - 3일 되었는데 늘 소음증만 보이고 양증이 없으면 마황감초부자탕으로 미미하게 발한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모두 음증에 쓰는 해표약이다.

- ○差后昏沈
- ○회복된 후 정신을 차리지 못 하는 경우

傷寒差後十數日，或半月二十日，終不惺惺，常昏沈似失精神，言語錯謬，又無寒熱，醫或作鬼祟，或作風疾，多般治之不差。或朝夕潮熱頰赤，或有寒熱似瘧。皆緣發汗不盡，餘毒在心胞絡間所致也。知母麻黃湯主之。

상한에서 회복된 지 십여 일이 되었거나, 혹은 보름이나 스무 날이 지나 도 끝내 정신이 맑지 않아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마치 실성한 것 같으 며 말에 두서가 없다. 그런데 한열도 없다. 의사가 혹 귀신의 장난으로 여 기거나, 혹 풍질로 여겨서 여러 가지로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혹 아침저녁으로 조열이 있고 뺨이 붉거나, 혹 한열이 학질과 같다. 이는 모두 발한이 완전하지 못하여 남은 독이 심포락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지모마황탕(知母麻黃湯)으로 치료한다.

- ○飲酒復劇
- 술을 마신 후 다시 심해진 경우

傷寒時疾，三日已汗解，因飲酒復劇，苦煩悶，乾嘔口燥，呻吟錯語，不得臥。黃連解毒湯主之。

상한이나 시질(時疾)이 3일 만에 이미 땀이 나면서 해소되었다가 술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심해져, 가슴이 타듯 답답하여 괴롭고, 헛구역이 하면서 입이 마르고, 신음 소리를 내고 헛소리를 하며 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황련해독탕이 치료한다.

- ○循衣摸牀
- 옷을 더듬고 침상을 만지는 경우

傷寒若吐若下後不解，不大便五六日以上，至十餘日，日晡即發熱，不惡寒，獨語如見鬼狀。若劇者，發則不識人，循衣摸牀，惕而不安，微喘直視。若微者，但發熱譫語。大承氣湯主之者，一服，利則止後服。脉弦者生，脉澀者死。

상한에서 토하거나 설사시킨 후에도 낫지 않고, 대변을 보지 못한 지 5-6일 이상에서 10여 일에 이르며, 해질 무렵이 되면 발열하고 오한은 없고, 귀신을 본 것처럼 혼자 말하기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옷을 더듬고 침상을 만지며, 놀라고 불안해하며, 약간 숨이 차고 눈을 곧게 뜬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라면 단지 발

열하고 헛소리만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이 주치하는데, 한 번 복용하여 설사하면 다음 복용을 중단한다. 맥이 현(弦)하면 살고, 맥이 삽(澁)하면 죽는다.

- ○傷寒別名 :
- ○상한의 다른 이름:

清便自調、自可，謂大小便如常也。大便秘而堅則曰鞭。小便不利，小便少，下利清穀，皆謂水穀不分。得大便曰更衣。大便堅，小便利，曰脾約。下利曰飧泄。腸僻謂痔也。寒而利曰鴨溏，熱而利曰腸垢。轉失氣謂氣轉而響，時時失下，卽後分泄氣，蓋腹中有積。大汗傷氣，大下傷血，或火邪逼迫驚狂，或尺寸脉緊而反有汗，或發汗後汗不止，曰漏風。或陰病本無汗而反有汗，或其脉浮遲微弱不能作汗，皆曰亡陽。吐、汗、下、溫針以後其病不解，曰壞病，曰何逆。瘥後更發熱曰遺熱。脉相剋賊曰負。兩手無脉曰雙伏，一手無脉曰單伏。左關脉曰人迎，右關脉曰氣口，足趺上動脈曰衝陽，足后跟上陷中動脈曰太谿。婦人乳頭直下近腹處曰期門。臍下一寸半曰氣海，二寸曰丹田，三寸曰關元。玄府卽汗空也。臍間動氣曰奔豚。筋惕肉動曰瞶。中暑曰中暎。妄發濕溫汗曰重暎。渴欲飲水，水入卽吐，曰水逆。心下停水悞，身無大熱，頭額微汗，曰水結胸。乾嘔曰呃，咳逆曰噦。目中不了了，謂不明了也。睛不和，謂不和平如常也。三月至夏方發病曰晚發。

푸른 색을 띤 변이 잘 조절되고 잘 나오면 대소변이 정상이라고 한다. 대변이 막히고 단단하면 굳었다(鞭)고 한다. 소변이 시원히 나오지 안거나, 소변양이 적거나, 소화 안 된 곡식이 자주 대변으로 나오면, 모두 수곡이 분별되지 않는다(水穀不分)라고 한다. 대변을 보는 것을 갱의(更衣)라 한다. 대변은 단단하고 소변은 잘 나오는 것을 비약(脾約)이라고 한다. 묽은 대변을 자주 보는 것을 손설(飧泄)이라 한다. 장벽(腸僻)은 치질을 말한다. 추위에 떨면서 설사하는 것을 압당(鴨溏)이라 하고, 열이 나면서 설사하는 것을 장구(腸垢)라 한다. 전실기(轉失氣)는 기가 돌면서 소리가 나고 때때로 아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말하니, 즉 뒤쪽으로 기가 새어 나가는 것으로 뱃속에 적취가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땀이 나서 기를 상하게 하고, 크게 설사하여 혈을 상하게 하며, 혹은 화사(火邪)가 팝박하여 놀라고 미치거나, 혹은 척맥과 촌맥이 긴한데 도리어 땀이 있거나, 혹은 발한 후에 땀이 멈추지 않으면, 이를 누풍(漏風)이라 한다. 혹은 음병에는 본래 땀이 없는데 도리어 땀이 있거나, 혹은 그 맥이 부(浮)하고 지(遲)하며 미약하여 땀을 낼 수 없는 것을 모두 망양(亡陽)이라 한다. 토법·한법·하법·온침 이후에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을 괴병(壞病)이라 하고, 하역(何逆)이라 한다. 병이 나은 후 다시 발열하는 것을 유열(遺熱)이라 한다. 맥이 오행상극 관계에 따라 서로 억제하고 자기의 맥상을 나타내는 것을 부(負)라 한다. 양손에 맥이 잡히지 않는 것을 쌍복(雙伏)이라 하고, 한 손에 맥이 없는 것을 단복(單伏)이라 한다. 좌측의 관맥을 인영(人迎)이라 하고, 우측의 관맥을 기구(氣口)라 하며, 발등 위의 동맥을 충양(衝陽)이라

하고, 발뒤꿈치 위 움푹한 곳의 동맥을 태계(太谿)라 한다. 부인의 유두 바로 아래 배에 가까운 곳을 기문(期門)이라 한다. 배꼽 아래 1촌 반을 기해(氣海)라 하고, 2촌을 단전(丹田)이라 하며, 3촌을 관원(關元)이라 한다. 현부(玄府)는 즉 땀구멍이다. 배꼽 사이의 동기를 분돈(奔豚)이라 한다. 근육이 떨리고 살이 움직이는 것을 순(潤)이라 한다. 중서(中暑)를 중갈(中渴)이라 한다. 습온에서 함부로 발한시키는 것을 중갈(重渴)이라 한다.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되 물이 들어가면 즉시 토하는 것을 수역(水逆)이라 한다. 명치 아래 물이 정체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에 큰 열이 없으며 머리와 이마에 미세한 땀이 나는 것을 수결흉(水結胸)이라 한다. 혀구역을 완(惋)라 하고, 해역을 얼(噦)이라 한다. 눈안이 어릿어릿 하는(目中不了了) 것은 물체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정불화(睛不和)는 눈동자가 평상시처럼 화평하지 않다는 뜻이다. 3월부터 여름에 이르러서야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만발(晚發)이라 한다.

- ○傷寒戒忌 :
- ○상한의 금기:

傷寒新瘥後，但少喫糜粥，常令稍飢，不得飽食，反此則復。不得早起，不得梳頭洗面，不得多言，不得勞心費力，反此則復。瘥後百日內，氣體未得平復，犯房室者死。忌食羊鷄狗肉肥魚油膩諸骨汁，及鹹藏鮓脯油餅麪，病再發。

상한이 새로 나은 후에는 다만 미음과 죽을 소량 먹고 항상 약간 배고프게 하며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병이 재발한다. 일찍 일어나서는 안 되고, 머리를 빗거나 세수를 해서는 안 되며,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수고롭게 하거나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병이 재발한다. 나은 후 백일 내에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남녀 관계를 하면 죽는다. 양고기、닭고기、개고기、기름진 생선、기름기 많은 것、여러 뼈국물 및 짠 저장식품、젓갈、포、기름떡、국수 등 을 먹는 것을 금하니 병이 다시 발병한다.

- ○臨治警省 :
- ○치료할 때는 경계하고 성찰해야 한다:

傷寒證候，傾刻傳變。傷寒治法，繩尺謹嚴，非可以輕心視之也。其間種類不一，條例浩繁，是固難矣。至於陰極發燥，熱極發厥，陰證如陽，陽證如陰；脚氣似乎傷寒；中暑似乎熱病；與夫蓄血一證，上熱下冷，乍悶乍寒，甚至四肢發厥，昏迷悶絕。凡此等類，尤當審思而明辨之。若疑似未別，體認未明，姑且試探，切不可妄投決病之劑。方匕雖微，死生係也。謹之哉。

상한의 증후는 순식간에 전변한다. 상한의 치료법은 준칙이 엄격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고 조례가 방대하고 번잡하니 이는 진실로 어렵다. 음이 극에 달하여 불이 타듯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열이 극에 달하여 사지가 차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

나게 되면, 음증이 양증과 같고 양증이 음증과 같으며, 각기병이 상한과 비슷하고, 중서(中暑)가 열병(熱病)과 비슷하며, 그리고 축혈(蓄血)이 있으면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우며,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워지고, 심지어 사지에 궤증이 발하여 혼미하고 답답하여 기절한다. 무릇 이러한 종류들은 더욱 마땅히 자세히 생각하여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만약 의심스럽고 비슷하여 아직 구별하지 못하고 명확히 체득하지 못하였다면 우선 시험적으로 탐색할 뿐이니, 결코 망령되어 병을 결정하는 처방을 투여 해서는 안 된다. 방제의 한 숟가락이 비록 미미하지만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신중하여야 한다.

- ○傷寒篤證 :
- ○상한의 독증:

搖頭直視，形如煙熏，心絕. 唇吻反青，四肢多汗，肝絕. 反<sup>①</sup>直視，狂言遺尿，腎絕. 汗出髮潤，喘而不休，肺絕. 環口黧黑，柔汗發黃，脾絕. 汗出如油，喘促無已，水漿不下，形體不仁，命絕. 大發濕家汗則成瘡，熱而瘡，不治. 發濕溫汗，身青面變，耳聾不語，曰重渴，不治. 發風溫汗，必譫語，並不治. 發風濕、中濕汗，並逆. 發動氣汗，不治. 發少陰汗，九竅出血，曰下厥上竭，不治. 發少陽汗則譫語，發汗只在頭面，不至遍身，鼻衄不止者，逆. 發汗不至足者，逆. 諸逆發汗劇者，言亂目眩，并不<sup>②</sup>. 當汗無汗，服麻黃數劑，七日汗不出者，不治. 汗出如珠不流，不治. 汗出如油，口噤肉戰，呻吟喘促，不治. 汗後嘔吐，水藥不入口者，

逆. 热病脉燥盛而不得汗，不治. 汗後不爲汗衰，復大熱脉躁疾，狂言不食，曰陰陽交，不治. 忽冒昧無脉，服藥後汗解則生. 若無汗，脉不至者，不治. 少陰，厥逆無脉，服藥通脉，其脉漸續則生，暴出則不治. 下利厥逆無脉，灸之脉不回，身不溫，微喘，不治. 少陰，四逆下利，惡寒而拳，發躁無脉，不治. 下利日十餘行，其脉反實者，逆. 少陽陽明合病，下利脉長大而弦，曰負，不治. 陽病見陰脉，不治. 發斑屬陽，見陰脉，不治. 代脉不治. 吐血、衄血，脉反浮大而牢，不治. 陰易、陽易，脉離經，外腎腫，腹中絞痛，手足拳攣，不治. 勒逆上氣，脉散者，不治. 證語脉反沈微，四肢厥冷，不治. 脉陰陽俱虛，熱不止者，不治. 七八日以上發大熱，難治. 舌本爛，熱不止者，逆. 下利發熱，或汗不止，厥不止，并不治. 下利發熱，厥逆，燥不得眠，不治. 證語直視，或喘滿，或下利，并不治. 證語屬陽，見陰證者，逆. 傷寒，脉乍疎乍數，不治. 發斑，先赤後黯，面色黧晦，不治. 發斑，大便自利，不治. 發黃而變黑，不治. 口乾舌黑，不治. 口張目陷，不治. 張口出氣，乾嘔，骨骸熱痛者，逆. 咳逆不止者，不治. 心下痞悶，上氣喘麌者，逆. 霍亂，喘脹煩燥，不治. 誤下溫家，額汗喘促，或小便不利，大便自利，不治. 頭汗，內外關格，小便不利，此爲陽脫，不治.

腹滿欬逆，不得小便，不治. 腹大滿而下泄，不治. 若脉洪緊而滑，尤可慮. 臟結如結胸，舌白胎，陰筋引臍腹痛，時時下利，不治. 結胸證具，加煩燥，不治. 臟厥七八日，發厥膚冷，煩燥下利，無時暫安，不治. 少陰吐利，厥逆煩燥，不治. 厥而下利，反能食者，曰除中，不治. 四肢厥

逆，臍下絞痛石硬，眼定者，逆. 厥陰唇青，舌卷黑，而耳聾囊縮，不治. 頭連腦痛甚，手足俱寒，不治. 陰毒、陽毒，過六七日，不治. 兩感，難治. 狐惑，咽乾聲啞，唇瘡，不治. 赤斑，五救其一. 黑斑，十救其一. 尋衣摸空者，逆.

머리를 흔들고 눈을 똑바로 뜨며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이 마치 연기에 그을린 듯하면 심이 끊어진 것이다. 입술이 벌어지고 푸르스름하고 사지에 땀이 많이 나면 간이 끊어진 것이다. 눈을 치켜 뜨고 멍하니 쳐다보며 헛소리를 하고 소변을 지리면 신이 끊어진 것이다.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숨이 가빠 쉬지 않으면 폐가 끊어진 것이다. 입 주위가 검게 변하고 끈적한 땀이 나면서 얼굴색이 누렇게 되면 비가 끊어진 것이다. 땀이 기름처럼 흐르고 숨이 몹시 가빠 그치지 않으며 물과 음료를 삼키지 못하고 몸이 감각이 없으면 명이 끊어진 것이다. 습병 환자에게 크게 땀을 내면 경련이 일어나는 치(痘)가 되고, 열이 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 치료할 수 없다. 습온에 땀을 내어 몸이 푸르고 얼굴색이 변하며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것을 중갈(重渴)이라 하는데 치료할 수 없다. 풍온에 땀을 내면 반드시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또한 치료할 수 없다. 풍습이나 중습(中濕)에 땀을 내는 것은 모두 역증을 일으킨다. 동기(動氣)에 땀을 내는 것은 치료할 수 없다. 소음(少陰)에 땀을 내어 아홉 구멍에서 피가 나는 것을 하궐상갈(下厥上竭)이라고 하는데 치료할 수 없다. 소양(少陽)에 땀을 내어 헛소리를 하고, 땀이 오직 머리와 얼굴에만 나오고 온몸에서 나는 것

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코피가 멎지 않으면 이는 역증이다. 땀을 냈는데 땀이 발까지 나는 것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도 역증이다. 모든 역증에 땀을 심하게 내면 말이 어지럽고 눈앞이 껌껌해지는데, 모두 치료할 수 없다. 마땅히 땀이 나야 하는데 땀이 없어서 마황을 여러 제 복용했는데도 7 일이 지나도 땀이 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땀이 구슬처럼 맺혀 흐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땀이 기름처럼 나오고 입을 악다물고 근육이 떨리며 신음하고 숨이 가쁘면 치료할 수 없다. 땀을 낸 후 구토하여 물이나 약액을 입에 넣지 못하는 것은 역증이다. 열병에 맥이 조(燥)하고 성(盛)한데 땀이 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땀을 낸 후 땀은 낸 것으로 인해 기운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큰 열이 나며 맥이 팔딱팔딱 뛰고 빠르며 헛소리를 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음양교(陰陽交)라고 하는데 치료할 수 없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맥이 없다가 약을 복용한 후 땀이 나면서 풀리면 살고, 만약 땀이 없고 맥도 이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소음(少陰)에서 사지가 차 들어가고 맥이 없을 때, 약을 복용하여 맥을 통하게 하여 그 맥이 점차 이어지면 살고, 맥이 갑자기 나타나면 치료할 수 없다. 계속 무른 변을 계속 보고 사지가 차 들어가며, 맥이 없을 때 뜰을 떠도 맥이 돌아오지 않고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미약하게 숨만 쉬면 치료할 수 없다. 소음(少陰)에서 팔다리가 차 들어가고 무른 변을 계속 보면서 오한이 들고 주먹을 꽉 쥐며 조증(躁症)이 나타나면서 맥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 하리(下利)를 하루에 십여 차례 하는데 그 맥이 도리어 실한 것은 역증이다. 소양(少陽)과 양명(陽明)이 동시에 병들어 하리(下利)하는

고 맥이 장대(長大)하면서 현(弦)한 것을 부(負)라고 하는데 치료할 수 없다. 양병에 음맥이 나타나면 치료할 수 없다. 반진이 나타나면 양에 속하는데 음맥이 나타나면 치료할 수 없다. 대맥(代脉)은 치료할 수 없다. 토혈이나 뉙혈(衄血)에 맥이 도리어 부대(浮大)하고 퇴(牢)하면 치료할 수 없다. 음역(陰易)이나 양역(陽易)에 맥이 경을 벗어나고 외신이 붓고 뱃속이 뒤틀리듯 아프며 손발에 경련이 일어나면 치료할 수 없다. 기침을 하면서 기운이 위 방향으로 치밀어 오르는데 맥은 산(散)하면 치료할 수 없다. 헛소리를 하는데 맥이 도리어 침미(沈微)하고 사지가 차 들어가면 치료할 수 없다. 맥의 음양이 모두 허한데 열이 멎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7, 8일 이상 열이 매우 심하게 나면 치료하기 어렵다. 혀뿌리가 헐고 열이 멎지 않는 것은 역증이다. 하리(下利)하고 열이 나고, 혹 땀이 멎지 않고 궤증이 그치지 않는 것은 모두 치료할 수 없다. 하리(下利)하고 열이 나는데 사지는 차 들어가고, 가슴이 타듯 말라서 잠들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다. 헛소리를 하고 똑바로 쳐다보거나 숨이 가쁘면서 가슴이 꽉 찬 듯하고, 혹 하리(下利)하는 것은 모두 치료할 수 없다. 헛소리는 양에 속하는데 음증이 나타나는 것은 역증이다. 상한에서 맥이 갑자기 느려졌다 가 갑자기 빨라지면 치료하지 못한다. 반점(發斑)이 나타날 때 처음에는 붉다가 나중에 검게 변하고, 안색이 검고 어두우면 치료하지 못한다. 반점이 나타나면서 대변이 저절로 나오면 치료하지 못한다. 황달이 발생하여 검게 변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입이 마르고 혀가 검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눈이 함몰되면 치료하지 못한다. 입을 벌리고 숨을 내

쉬며, 헛구역질을 하고, 뼈마디에서 열이 나고 아픈 것은 역증이다. 기침과 딸꾹질이 멈추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명치 아래가 막혀 답답하며, 숨이 차올라 거칠게 숨쉬는 것은 역증이다. 꽉란(霍亂)에 숨이 차고 배가 불러 오르며 번조(煩燥)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온열병 환자를 잘못 하법(下法)으로 치료하여 이마에 땀이 나고 숨이 가쁘고, 혹 소변이 나오지 않고 대변이 저절로 나오면 치료하지 못한다. 머리에만 땀이 나고 안팎이 막혀(關格)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양기가 탈진한 것이니 치료하지 못한다. 배가 불러 오르고 기침과 딸꾹질이 나며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배가 크게 불러 오르면서 설사를 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만약 맥이 홍(洪)하고 긴(緊)하면서 활(滑)하면 더욱 우려된다. 장결(臟結)이 결흉(結胸)증상 같아 보이고, 혀에 흰 태가 끼며, 음근이 배꼽을 당기고 배가 아프며, 때때로 설사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결흉의 증상이 갖추어지고 번조(煩燥) 증상까지 더해지면 치료하지 못한다. 장궐(臟厥)이 7~8일 되어 궐증(厥症)이 나타나 피부가 차며, 번조(煩燥)하고 설사하여 잠시도 편안할 때가 없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소음(少陰)에 구토와 설사가 있고 사지가 차고 번조하면 치료하지 못한다. 사지가 차가워지고 설사하는데 도리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중(除中)이라 하니 치료하지 못한다. 사지가 차갑고, 배꼽 아래가 비틀어지듯 아프며 돌처럼 단단하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면 역증이다. 궐음(厥陰)에 입술이 푸르고, 혀가 말리고 검으며, 귀가 먹고 음낭이 오그라들면 치료하지 못한다. 머리에서

뇌까지 심하게 아프고 손발이 모두 차가우면 치료하지 못한다. 음독(陰毒)과 양독(陽毒)이 생긴지 6 - 7일이 지나면 치료하지 못한다. 양감(兩感)은 치료하기 어렵다. 호혹병(狐惑病)에 목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며 입술에 창(瘡)이 생기면 치료하지 못한다. 적색 반점이 나면 다섯 중 하나를 살릴 수 있다. 흑색 반점이 나면 열 중 하나를 살릴 수 있다. 옷을 더듬고 허공을 더듬는 것은 역증이다.

1. ① : 目 ※《四庫全書》[←](#)

2. ① : 治 ※《四庫全書》[←](#)

# 해제

## 개요

이 책은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의 대방맥잡의과(大方脈雜醫科) 중 권2 상 풍(傷風) 외를 번역한 것이다.

## 서지사항 및 판본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은 원대 강서(江西) 남풍(南豐) 지역의 의학교수였던 위역림(危亦林: 1277-1347년)이 본인 가계의 5대에 걸친 의학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여, 1345년(원대 혜종 13년)에 출간한 방서(方書), 즉 처방류 의서이다. 책의 원 편제는 19권이고, '천금방양생서(千金方養生書)'이 덧붙여진 후대의 《사고전서四庫全書》본은 총 20권이다. 자세한 편제는 대방맥잡의과(大方脈雜醫科)(권1-10)、소방과(小方科)(권11-12)、풍과(風科)(권13)、산과겸부인 잡병과(產科兼婦人雜病科)(권14-15)、안과(眼科)(권16)、구치겸인후과(口齒兼咽喉科)(권17)、정골겸금족과(正骨兼金鏹科)(권18)、창종과(瘡腫科)(권19)、손진인양생서(孫真人養生書)(권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1종의 병명

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에 사용한 판본은 《중의고적진본집성 中醫古籍珍本集成》에 실린 원각본(元刻本)을 저본으로 사용하였고, 마멸된 글자는 《사고전서 四庫全書》본 등을 참조하여 교감하였다. 저자 위역림(危亦林: 1277-1347년)은 원대 저명한 골상과 의사로서 동아시아 전통 골상과(骨傷科)의 대표적 의학인 물이다.

\* 참고자료

《中醫古籍珍本集成》(方書卷)《世醫得效方》(解題), 湖南科学技术出版社, 2014

《世醫得效方》,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고의서산책236, 世醫得效方, 민족의학신문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4>)

世医得效方, 国家中医药名词术语成果转化与规范推广, 中医药管理局

(<https://baike.baidu.com/item/%E4%B8%96%E5%8C%BB%E5%BE%97%E6%95%88%E6%96%B9/8444329>)

## 일러두기

### 판본 및 구성

- 이 책은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의 대방맥잡의과(大方脉雜醫科) 중 권2 상풍(傷風) 등을 번역한 것이다.
- 판본은 중국 호남과학기술출판사(湖南科學技術出版社)가 2014년에 출간한 《중의고적진본집성(中醫古籍珍本集成)》에 실린 《세의득효방》은 저본으로 사용하였고, 마멸된 글자는 《사고전서(四庫全書)》본 등을 참조하여 교감하였다.

### 표기법

- 처방의 구성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약간 변형하였으나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팔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寸/촌, 字/자, 圓/환 등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 인명이 아닌 龜의 독음은 구흉(龜胸)과 같이 '구'로 표기하였다.

- 두음법칙에 따라 尿, 腥, 泥 등이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 목과(모과)와 같이 원래의 한자 독음과 관행적 약재 독음이 다를 경우 관행적 독음으로 번역하였다.
- 천황련(川黃連)처럼 약재 앞에 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독음으로 번역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졸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의미가 동일한 이체자나 이형자는 가능한 현대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자로 수정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斂=斂, 茂=茂, 褒=褒, 韶=韶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① : 판독 안되는 글자
- [ ] : 서적의 작은 글씨
- 【】 : 음각
- {} : 양각

##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세의득효방 대방맥잡의과 상풍 외 / 世醫得效方 大方脉雜醫科 傷風 외

원저자 : 위역림(危亦林)

국역 : 권오민

해제 : 권오민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5년 11월 15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  
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정현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  
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5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 ISBN 978-89-5970-596-2 (PDF)
- ISBN 978-89-5970-610-5 (세트)